



時計塔

SIGETOP



2022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9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安祐成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편집인: 徐倫錫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SNUCMAA of North America 37th Convention

37차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

3년 만에 개최되는 북미주동창회 학술대회를 위하여 회장단과 준비위원회에서
좋은 강사들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동기, 동문들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June 23(Thursday)~June 26(Sunday), 2022

at **Westin Tyso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Tel: (703) 893-1340

June 23, 2022 (Thursday)

8:30 am-3:30 pm: Westfields Golf Club
13940 Balmoral Greens Ave.
Clifton, VA (tel: 703-631-3300)
(Tee time: 8:30 am)
4:00 pm-5:30 pm: Registration in Main Hall
5:30 pm-6:30 pm: 2nd BOD, Delegate Meeting,
room Evergreen

June 24, 2022 (Friday)

7:30 am-8:30 am: Breakfast, room Birches
8:00 am-12:00 noon: Registration at Main Hall
9:00 am-12:00 noon: Non CME, room Oaks 2
12:00 noon -1:00 pm: Lunch, room Birches
1:00 pm- 4:50 pm: Non CME, room Birches
3:00 pm-6:00 pm: Registration at Main Hall
6:30pm-10:30 pm: Banquet, room Oaks Ballroom

June 25, 2022 (Saturday)

7:30 am-8:30 am: Breakfast, room Birches
8:00 am-12:00 noon: Registration at Main Hall
9:00 am-12:00 noon: Scientific Session, room Oaks 1
9:00 am- 12:00 noon: Non CME, room Oaks 2
12:00 noon-1:00 pm: Lunch, room Birches
1:00 pm-5:00 pm: Scientific Session, room Oaks 1
1:00 pm-3:50 pm: Non CME, room Oaks 2
3:00 pm-6:00 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5:15 pm-6:45 pm: Reception, room Cherry Blossom
Junior Ballroom
7:00 pm-11:00 pm: Grand Banquet, Oaks Ballroom

June 26, 2022 (Sunday)

7:30 am-8:30 am: Breakfast, room Birches
9:00 am-12:00 noon: Scientific Session, room Oaks 1
12:00 noon-1:00 pm: Lunch, room Birches
1:00 pm- 3:00 pm: Scientific Session, room Oaks 1

- 미망인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제37차 - 2022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서윤석 신규호 신원석 신용계 김성환 김영애 조병선 남명호 박종철 차민영 외
50기 회장단 일동



2021-22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안우성 50대 회기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1950 나수섭 1954 김갑균 이동식 1955 노용면
- 1956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1957 임종식
-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문석면 류치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이동립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김병구 김용덕 나길진 방석운 이종수 임낙중 서경화 신한수 정태진 최용천
최대한 최종진 최혜숙 한달수 한성업
-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최홍락 한성수
- 1961 고의걸 광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학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박장생 박호성
서희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고 이동해 이준우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백
이철희 장성환 정두현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공창 최용성 황현상
- 1962 고희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남성희 박종건 박종승 박진수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이상복 이영웅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조 김갑중 김광섭 김승태 김정일 김현철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학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윤진수 이병준 이수인 이송현 이종두 이재명 장세근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선원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박세준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윤희기 이웅만 이정은 이주영 이정필 이재품
이종성 이종오 이홍표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조창언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김길중 김옥현 김덕진 박수안 신백호 윤원길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재진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장재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최동욱
최영인 채도경 채무원 한원민 홍수웅
- 1966 김우신 김은한 김용재 김의신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이명희 이인수 이영일
장한교 조규용 정량수 조관상 최순채 최영자 한일성 허서룡 황 철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진수 이태안 최무웅 최승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용계 안극환 안세현 유우영 이병순 이상훈
정재성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송용재 서 량 신영찬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욱 윤순재 윤희운 이용환 이충호 이지훈 임만우 임웅규 전덕성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문성길 오석일 장극기 송요준 박홍식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홍 건
홍종철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광승용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 훈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이남수
이성길 이원택 이종일 이종준 장 철 정인용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최영철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정진우 조경호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민인기 방병기 박진섭 송정자 서인석 심완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조재중
- 1974 권철수 구재훈 김웅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조철영 한 일
- 1976 김정아 유영걸 한승신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박정식

- 1979 이승호 1980 박남훈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1984 구철희 서귀숙 정희국 오도영
- 1985 김자성 1991 강민중 홍정연 1994 안상훈
- 1995 권준혁 2001 김민정 2002 최태웅
- 2008 박종한 2009 송경민

37th CONVENTION DONATION

- 임종식(57)1,000 김해암(58) 100 최종진(59) 200 권기홍(60) 500 황현상(61) 200
- 김태웅(63)1,000 이재품(64) 100 이홍표(64) 300 채무원(65)1,000 김영남(68) 500
- 서윤석(68) 500 유우영(68) 300 윤효윤(69) 100 전덕성(69) 200 김성환(71)1,000
- 오용호(72) 200 김천일(73) 100 박진섭(73) 200 김웅진(74) 100 권철수(74) 100
- 유영준(75) 150 배영훈(75) 75 김정아(76) 500 유영걸(76) 150 한승신(76) 500
- 신원석(88) 300

GREEN PROJECT FUND

- 정정수(62) 375 이홍표(64) 200 홍광신(68) 100 차재철(68) 75 이성길(71) 100
- 오용호(72) 300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300
- 한승신(73) 300 박남훈(80) 200 서귀숙(84) 100 홍정연(91) 100 최태웅(02) 100

CHARITY FUND

- 박승균(61) 100 라찬국(64)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최영인(65) 100
- 최영자(66) 200 오용호(72) 300 민인기(73) 200 김웅진(74) 100 한 일(75) 375
-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채도경(99) 100

SCHOLARSHIP FUND

- 한성수(60) 150 임필순(60) 200 황현상(61) 100 고희호(62) 100 이기범(62) 375
- 박종건(62) 500 박종승(62) 100 김태웅(63)10,000 장세근(63) 350 한광수(63) 100
- 한기현(63) 375 이재품(64) 100 이홍표(64) 200 안연승(64) 400 이광선(65) 75
- 강명식(67) 175 이영균(67) 150 김주평(68) 75 차재철(68) 100 박수웅(69) 175
- 김효순(71) 125 서정자(71) 400 이기진(72) 500 김웅진(74) 100 김자역(75) 500
- 유영걸(76) 100 구철희(84) 75

GENERAL DONATION

- 김갑균(54) 100 노용면(55) 325 서상철(56) 75 김석희(58) 200 박용화(58) 100
- 최창송(58) 100 문석면(58) 150 정태진(59) 75 한성업(59) 100 최혜숙(59) 225
- 권기홍(60)1,550 박명근(60) 50 김인환(60) 200 이상일(60)1,000 손기용(61) 200
- 이철희(61) 200 장성환(61) 100 진창건(61) 75 최용성(61) 100 황현상(61) 100
- 남성희(62) 125 박종승(62) 150 권영조(63) 500 김현학(63) 75 송용덕(63) 200
- 신경호(63) 75 이병준(63) 100 조한원(63) 75 추재욱(63) 500 권정덕(64) 100
- 김태환(64) 125 이재품(64) 250 이홍표(64) 175 최준희(64) 200 박수안(65) 100
- 이한승(65) 50 정길화(65) 100 김진수(66) 25 김진호(66) 100 이인수(66) 100
- 정량수(66) 75 김영남(68) 200 이병순(68) 875 이상훈(68) 175 차재철(68) 125
- 김중권(69) 200 서 량(69) 375 윤효윤(69) 100 이용환(69) 100 김형달(70) 100
- 오석일(70) 100 광승용(71) 125 김일영(71)1,000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 오동환(71) 200 이남수(71) 75 장 철(71) 75 하준영(71) 75 조경호(72) 250
- 김천일(73) 100 나두섭(73) 300 박진섭(73) 200 이계석(73) 100 서인석(73) 100
- 권철수(74) 100 유영준(74) 175 박인영(75) 50 조철영(75) 100 김동훈(77) 200
- 차민영(82)1,000 오도영(83) 75 전원일(83) 125 서귀숙(84) 100 김자성(85) 100
- 박정미(85) 200 권준혁(95) 150 조수정(03) 125
- 이정민 여사(Mrs. 차봉희 57) 1,000 윤치자 여사(Mrs. 윤좌병 63) 200

AASCDTF DONATION

- 황현상(61) 100 김태환(64) 50 한영수(67) 200 강창홍(71) 100 이성길(71) 100

남가주 신년 하례식

2022년 3월 20일(일) 오후 6시 남가주 서울 의대는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12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차민영 회장은, 전 회장인 안우성과 총무 및 재무였던 김영애 그리고 20여 년 동안 사진 촬영으로 수고한 나두섭 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현재 남가주 서울 의대 임원은 이사장 이현영(68) 그리고 회장 차민영(82), 총무 김자성(85), 재무 안상훈(94) 동문 등이 수고하고 있다.



편집회 초록

이번에도 편집회는 4월 9일 오후 1시 Zoom으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허선행, 서량, 황창근 사장, 서윤석, 제이미 김 사무장이 참석했고 박은경 위원과 서귀숙 위원은 미리 양해를 얻었다.

이번 호에는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의 부고가 실린다. 삼가 그동안 타계하신 여러분들과 Mrs. 이만택이신 윤 여사님의 명복을 빈다.

예정대로 6월에 개최되는 제37차 학술대회에 대한 의논과 그 해당 기사를 어떻게 실을 것인가를 의논했다. 강창욱 동문의 의사이며 소설가인 따님 Lydia Kang의 책과 이원택 동문의 '미한 사전'에 관심이 있는 동문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학회 도중에 저자들의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책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학술대회 때 저서를 몇 권 지참하고 본인에게 오시기 바란다.

아직 원고가 다소 부족하여 그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 편집회는 7월 9일에 있을 것이다. 6.25 이야기는 개인적인 사항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여 실어도 좋겠다고 게재가 통과되었다. 분량이 많아서 두 회에 나누어 실는다. - 글: 편집인



책 소개 Patient ZERO

Author Lydia Kang, M.D. and Nate Pedersen
A Curious History of the World's Worst Disease

강창욱(61) 님의 따님인 Lydia Kang은 8권의 문학작품 소설과 Medicine과 관계된 Quackery 같은 5권의 서적을 출판하여 이미 잘 알려진 문필가이다.

University Nebraska의 현직 내과 의사인 저자는 이번에는 판데믹과 관계된 이 서적을 발간했다. 본인은 이 책을 접하는 순간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우리 인류가 당면했거나 하고 있는 전염병의 역사, 그 원인의 규명, 치료의 발전, 예방의학, 정치 사회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분석했다. 천연색 그림과 사진을 총망라하여 독자를 쉽게 이해시켜주는 귀중한 내용이다.

부부가 의사로서 1남 2녀를 기르면서 문필가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녀의 행보가 현재 Maryland에서 Active 정신과 의사이며 문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버지 강창욱(61) 님과 흡사하다.

병균과 공존해온 인류의 생존 기록을 차례대로 서술한 기록영화이다.

이집트, 히랍 시대, 중세기를 포함해서 Plaques, Small pox, Syphilis, HIV, Polio, Tuberculosis, Leprosy 등 여러 전염병에 대하여 설명했다. 중국 후안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COVID-19의 발생 초기의 내막, WHO와 중국정부와 과학자 사이의 갈등, 그 숨겨진 이야기도 소개됐다. 인류는 새로운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많은 희생자가 속출했다. 그래도 결국 하나둘씩 그 질병을 이겨내고 생존해왔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 필독의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

영문판이며 정가는 \$24.95 Hard Cover로 미국 책방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Amazon에서는 \$19.24에 판매되고 있다. 참고로 그녀의 Quackery(뿔팔이 의학)은 5개 국어로 이미 번역 출판되었다.

그녀는 2021년 가을 한인 2세로서는 처음 미주 팔봉문학상(따님 김복희 전 이대 음대 성악과 교수, 포토택 포럼 이영목 회장 주관)을 받았다.

책과 저자의 사진을 함께 올린다. 글; 서윤석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장 행복하셨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 임상을 하셨다면 전공과목은?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된 경험은 언제이었던가요?
6. 의대학창시절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말씀하여주세요.
7. 다시 태어나셔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

8.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에 얻은 경험 중에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긍정적 부정적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소 자량이 되어도 좋습니다.
9.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소개하여주시고. 혹시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언제 끊으셨습니까? 혹시 종교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10.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때에 무엇을 의지하셨나요? 편집위원회에나, 의과대학, 동창회나 후배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김태환 (64) 선배님



1. 만삭의 아내와 함께 미국 땅을 처음 밟은 것은 1969년 6월 25일 뉴욕의 케네디 공항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어느 가족이든지 다 치루어야 했던 소양 교육 시간에 아내의 한 가지출 출신 여자분으로부터 어떤 사유로 미국을 가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고 의사인 남편을 따라간다고 하니가 그러면 당신 남편은 '면허증' 있는 진짜 의사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공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여러 뉴욕 신문의 1면에는 일제히 배우 Judy Galand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고 온 우리 부부는 \$200을 갖고 왔습니다.

2. 고모님 절친의 동생을 소개받아 2년을 데이트한 후 결혼했습니다. 54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운 좋게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긴 데이트 기간 동안 지금 생각하면 천추의 한이 되는 어리석은 일도 저질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쓸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장 행복했던 때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세 명의 아이가 전부 다 결혼해서 짝을 이루고 살며 제 밥벌이를 다 하며 손주 일곱 명을 포함한 아이들 전부가 다 건강하니 저는 아주 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3. 공대와 의대를 저울질하다 입학시험 2달 전에 의대 진학으로 정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직업이라는데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 외에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줄 줄 아는 소통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치료 방사선과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미네소타 대학병원이 70년대를 통해 Bone Marrow Transplant program의 major center로 부상했는데 Total Body Irradiation(TBI)을 제가 책임 맡아 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TBI의 standard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전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던 입양아 공군 사관생도 성덕 바우만 documentary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미네소타 대학을 떠날 때까지 약 1000명의 환자께 TBI를 주었습니다.

5. 가족과 나의 행복. 대학에서 일할 때 research grant를 따기 위한 준비과정과 미네소타 주의 Best Doctor로 동료들이 뽑아 주었을

때.
6. 4.19날 본과 1학년이었던 저는 급우들과 같이 힌 가운을 걸치고 동승동, 종로 그리고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를 향한 데모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에는 일반 시민들이 구름같이 늘어서서 우리들에게 손뼉을 치며 성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 왔을 때 길이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화문 대로상에서 주저앉아 도시락을 퍼들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군중 속에서 할머니와 부모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생 데모 소식을 들으시고 용산에서 달려 나오신 것입니다. 데모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부모님께 맡기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앙청을 돌아 통인동에 도달했을 때 경찰 발포가 시작되었고 결국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데모대는 그렇게 해산이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2013년 9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문리대를 다니던 친구가 보낸 조문입니다.

"4.19 날 데모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너를 찾아 문리대 교정을 헤매며 다니시던 어머니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철없는 자식입니까?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생각 못 하고 어느 골목길 술집에서 막걸리나 마시며 무용담을 떠버리고 있었겠지요.

7. 네, 다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재능까지 택할 수 있으면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트롯가수.

8. 아이들에게 일류 대학을 가야 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일류 대학을 간 아이도 있으나 여하튼 모두 다 안정된 직장을 얻어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에게 걸맞은 백인 배우자들을 만났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약물 남용 같은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크게 후회하는 것은 한국말을 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9. 일주일에 Line Dance 한 번(3시간), golf 2 rounds(cart 타고) 그리고 그 외의 날에는 걷습니다.

1958년 대학 입학부터 담배를 피우다가 1978년에 끊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집안 어른들을 따라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지만 훌륭한 교인은 못됩니다.

10. 소설, 특히 범죄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로는 John Sanford, Michael Connelly 등이 있습니다. 시계탑 발간에 꾸준한 정성을 쏟아 주시는 편집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채무원 (65) 선배님



1. 우리 부부는 1969년 7월 초 부모님과 작별하고 김포공항에서 Northwest 비행기를 타고 앵커리지를 거쳐서 시카고에 도착한 것이 미국생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200의 돈과 가방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굳은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의과대학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선배, 선생님들의 지식과 토론회에서 그분들이 보여준 토론에 우리는 매혹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어오는 미국 바람이 많은 학생들을 졸업 후 미국으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2. 1965년 의대졸업 후 3년의 해군 군의관 의무를 끝내고 1년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친구의 친척의 소개로 처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국 졸업을 한지 4년 후인 1969년에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3. 의사가 되게 한 동기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Dr. Schweitzer의 존경스러운 생애가 영향을 주었고, 그 사람처럼 타인을 돕는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4. 젊어서부터 희망한 것은 존경을 받는 나 자신의 Department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DNA인지 서울대학생의 DNA인지 모르겠네요.

1년 인턴쉽과 2년의 Surgical 레지던시를 하면서 그것이 잘못 선택인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Radiology로 전공을 바꾼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으로 전환점이 됩니다. 1972년부터 시작한 Radiology 레지던시를 끝냈을 때 저는 Wayne State University의 Radiology Faculty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게 되었지요. 당시의 꿈은 Excellent Radiology Residency Program을 우리 병원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St. John Hospital Radiology Department로 recruit되어서 Private Practice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병원에서 CT Scan을 구입하면서 Neuroradiology를 시작하고 CT Department 디렉터로 30년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1988년, 그 후 10년이 지나고 MRI를 도입하면서 우리의 practice가 mature되었습니다. 2006년 half retire하고 2013년 12월말에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30년 pracice중, St. John Hospital을 St. John Hospital Medical Center로 전환하도록 도움을 준 것에 작으나마 보람을 느낍니다.

5. 힘이 들었던 일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우리 Radiology를 키워가는 도중 Radiology Teaching Assignment/QA Assignment /CT Director Assignment를 다

같이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 Burn Out 되었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나의 정신과 육신에 별 탈이 없이 지냈던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그 때 아내가 보여준 끊임 없는 노고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Radiology Department에 대하여 주위의 많은 Clinician들이 칭송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훈훈해지곤 했던 일입니다.

6. 대학 2학년 때에 이규명 선생님의 미생물 강의중 Cancer는 Virus와 Immunity에 관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머리에 박혀 있는데요. 그것은 60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학 3, 4학년 시절 미국에서 training을 받고 귀국하신 젊은 선배님들의 의학 토론에 매혹되어 동경하고 존경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낙후되어 교과서를 암기만 하던 당시 우리나라 의학공부에 새로운 선풍을 주는 장면이었지요.

7. 저에게는 Radiology가 아주 적합한 speciality였습니다. clinician의 고민을 image를 통하여 해결해주는 해결사, 더 없는 좋은 전공과라고 생각합니다.

Technology Improvement와 함께 clinician을 많이 도울 수 있어서 아주 보람된 즐거움은 30년이었습니다.

8.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꿈을 심어주는 것, 둘째 종교를 심어주는 것 입니다.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정이고, 종교는 인생살이 중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애는 51세, Harvard 재학중 영국에 장학생으로 Political Science Master, 그리고 Chicago Law School을 나오고서 하버드 메디칼 스쿨을 졸업했지요. 그리고 결국 JD, MD로 Intervention Cadiology를, 그중 특히 E.P.(Electro Physiology) 전문으로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Gastroenterologist입니다. 손녀가 12살, 손자 10살, 7살입니다.

둘째 아들은 University of Michigan을 나와서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지요.

우리의 종교는 개신교이고 버지니아의 장로 교회에 다닙니다. 사랑의 복음이 중심이 된 교인들이 모인 이곳이 우리 노부부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9. 건강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골프를 합니다. 여름에는 Virginia, Stonewall Golf Club에서 겨울에는, Orlando, Florida의 Reunion Golf Club에서 일주일에 4-5번 칩니다. 골프 후 맥주 한잔, 혹은 저녁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10. COVID-19 사태는 우리에게 골프를 더 치게했지요. 지난 몇 년 여행을 못하여 아쉽지만.

우리는 시계탑을 통하여 많은 동창들의 소식을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숨쉬고 서로의 우정이 교류됨을 느낍니다.

편집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한 사전 소식

'한국의 Webster 사전'을 꿈꾸고, 작년에 「미한(변형)사전」을 출판한 바 있는 이원택(71) 동문이 불완전 「미한(원형)사전」을 내고 사전계에서 은퇴할 예정인데, 사전작업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문들이나 자제, 친지들 중에 사전쓰기를 평생 취미나 부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wonlee0120@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심심풀이로 아주 제격이고 잘하면 돈벌이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내로 거의 완벽한 「미한(변형)사전」 - 개정판이 나올테니까 앞으로는 시대에 맞춰 매 2년마다 보완, 재정 작업만 하면 됩니다.

■ 얼마전 동창회 사무실과의 통화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시던 윤좌병(63) 동문께서 오래전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Mrs. 윤좌병(김치자 여사)께서 \$200(General Donation) 함께 전해 오셨습니다.

지부, 동문, 동기들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동창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시환 동문

(99년 졸업, 신경과)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의대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국적이 미국인데, 한국 국적이 아니면 모교 병원에서 인턴을 할 수 없기에 본과 4학년 때 부리나케 미국에서 수련 받는 길을 알아보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UPenn에 다니고 있던 친한 친구 근처로 이사와 Kaplan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여 USMLE 전 과정을 연달아 치르고 2000년부터는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에서 포닥으로 일하면서 신경과 레지던시에 지원했습니다.

2. 주로 어떤 환자들을 보시나요?

레지던시 수련은 University of Chicago 병원에서 하였고, 임상 신경생리학 펠로우쉽을 UC San Diego에서 하면서 뇌파검사(EEG)와 근전도검사(EMG)를 집중적으로 습득하였습니다. 현재 Upland, CA에서 개업의로 일하면서 치매, 파킨슨, 간질,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중증근무력증, 자폐증, 주의력결핍장애, 학습장애, 다운 증후군 등 신경과 관련 질병을 거의 다 봅니다. 제 환자들 연령은 5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하지요. 월,수,금은 매일 외래 환자를 20-30명 정도 보고, 화,목,토는 입원 환자 30-40명 가량을 회진합니다. 일요일에는 주로 쉬려고 하지만 가끔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근육성 질환을 많이 접하다 보니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muscular and Electrodagnostic Medicine(AANEM) 보드를 추가로 따게 되었고, 환자분들 중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 공정한 장애 판정을 위해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ABDA)라는 보드도 따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너무 많지요. 사정이 하도 딱하여 가슴 아픈 케이스들도 많고,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공격적인 환자나 보호자도 꽤 있습니다. 후배님들은 부디 환자와 보호자들을 잘 헤아려주시면서도 차트 기록을 철저히 꼼꼼하게 해서서 자신을 보호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뭔가 미심쩍은 경우에는 의료적인 것 외에도 환자의 말투나 태도까지 기록해 놓기를 권합니다.

3. 사시는 동네 소개해주세요.

제가 16년째 살고 있는 Rancho Cucamonga, CA는 LA와 Palm Springs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인구 20만명의 소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도 운전하신 분은 저희 동네를 지나가셨을 겁니다. 주거지가 대부분이고 도심 분위

기는 중앙에 있는 Victoria Gardens라는 야외 쇼핑몰에서만 느껴질 정도로 조용한 동네입니다. 근처에 병원이 많아서 인지 의료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인도 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Victoria Gardens나 Ontario Mills라는 쇼핑몰에 가기도 하고, 근처 LA나 Diamond Bar, Cabazon 같은 곳으로 놀러갑니다. 캘리포니아는 타주에 비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melting pot 이죠.

4.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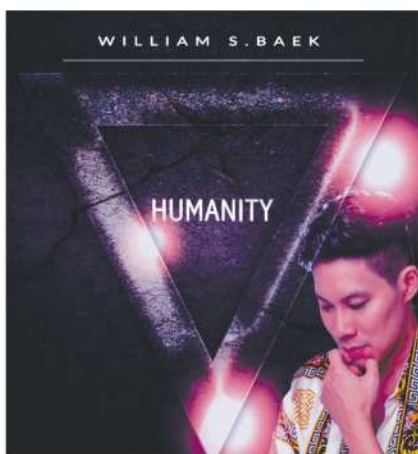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 운동, 음악, 예술 등 여러가지 과외활동을 중시하니까 이것 저것 많이 시켰습니다. 아들이 16살인데, 요즘에는 수구, 테니스, 오케스트라(트럼펫), 의료클럽활동, 리더십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대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했었는데, 아들도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피아노 하는 친구와 둘이서 한달에 한번 플로동네 양로원에 가서 클래식 뿐만이 아니라 시네마 뮤직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공연도 합니다. 음악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 믿습니다.

5.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20년도 넘어서 그런가요, 가끔 학생때가 꿈같기도 하고 진짜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의대 오케스트라 활동, 예과 2학년 때 다녔던 하버드 써머스쿨, 본과 2학년 때 갔던 유럽 여행 등이예요. 특히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에서의 추억이 많아요. 롯시니(Rossini)의 '도둑까치(La Gazza Ladra)' 서곡에서 트럼펫 솔로를 해냈던 희열이 아직도 생생하고, 공연 직전 리허설 중에 황당하게도 커튼 뒤 플랫폼 아래로 제 의자가 넘어가서 식은땀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연주 후 뒷풀이에서는 누구나 원하던 원하지 않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었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공부는 주로 도서관에서 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해서 그런지 덜 힘들었던 것 같네요. 시험 기간이 끝나면 친구들과 나이트 클럽에 몰려가서 신나게 음악에 몸을 맡기던 추억도 소중한데요.

6. 싱어송라이터로서 음반을 내신 독특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 장의 음반을 내었는데, 2018년에 1집을, 2020년에 2집을 냈습니다. 1집 <Walk Again>에는 질병을 주제로 한 총 10곡이, 2집 <Humanity>에는 질병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과 내면을 다룬 총15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장르는 댄스, 발라드, 락, 팝컨트리, 라틴레게, R&B, 재즈 등 다양하고, 노래도 영어, 스페인어, 불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불렀습니다. 곡의 주제도 치매, 중풍 등 신경학적 질환 뿐만 아니라 죽음, 이혼, 결혼, 종교, 정치사회적 문제, 자아인식, 지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채롭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가 되고싶은 꿈이 있었는데, 일단 의대 들어왔으니까 의사부터 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본3 무렵부터 도서관

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틈틈이 작사 및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온 후 바쁘게 지내다가 2005년부터 다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1집에 수록된 루게릭병(ALS) 환자를 위한 노래 'Love Again'이 그때 쓴 곡입니다.

아들 낳고 키우다 보니 세월은 다시 흘러 2013년부터 다시 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성악 레슨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 중환자실 간호사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대중음악 전문 프로듀서 Stephan을 만나 1집 음반을 내게 되었어요. 그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논문이 아닌 노래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을 통해 신경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드높이고 음악이란 매개체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어쩌면 제가 더 치유와 용기를 받았네요.

제 노래들은 Spotify, iTunes, Amazon, Youtube 등의 주요 매체에 다 올라와 있으니 꼭 들어봐주세요.

(참조: <https://www.youtube.com/channel/UCSkXiMovm3XkDSmGtiTkUpg>).

곡 소개를 조금씩 해드리자면, 'Your Void'라는 노래는 너의 죽음 후 느끼는 나의 빈 공간을, 'Jumpstart'는 중증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Free-wheeling'은 주의력결핍장애(ADHD), 'Set your body free'는 파킨슨병, 'La pelicula blanca (The white movie)'는 자폐증 및 다운증후군, 'Chained to a dream'은 뇌졸중을 주제로 담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곡에 담긴 메시지가 특정 질병에 국한되기 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Jumpstart'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드는 두려움을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고, 'Set your body free'에는 병(단점)을 숨기지 말고 자신감을 갖자는 곡입니다. 'La pelicula blanca'에서는 분주한 현대 사회에서 단조로운 생활도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조명하였고, 'Love again'은 루게릭병에 관한 곡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달라는 의미를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에 관한 'La Luz (The light)', 관계에 관한 'Heart-ache (아랍어 노래)', 이혼/이별을 다룬 'If you leave me',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Lost and found', 진정한 의사소통을 강조한 'It's just not enough (Ce n'est pas suffisant)'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둡고 힘든 주제들도 덮어두지 않고 다루고 싶었습니다. 3집은 내년 쯤 내려고 준비중입니다. 결혼을 주제로 한 곡, 아베마리아를 댄스풍으로 편곡한 곡 등을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음은 Stephan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됩니다.

7.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막막했던 때는 미국 의사면허시험을 다 마치고 나니 한국에서 가져온 전재산 2천만원이 거의 바닥났을 때였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지원하는 곳마다 유경험자를 우대하니 갓 의대졸업생으로서 아무 경력이 없던 저로서는 막막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때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의대 선배님 덕에 CHOP에서 포닥(post-doctoral)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예요. 혼자서 노래연습도 하고, 운동하고, 외국어 공부 할 때 너무 좋아요. 요즘 불어, 이태리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번갈아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세식구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때 가장 행복하지요.

8. 다언어에 능통하신 비결은?

영어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자연스럽게 배웠고, 한국어처럼 모국어로 생각이 됩니다. 일어난 한국에 있을 때 학원에 다니면서 배웠는데 일본 친구나 환자들을 접하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다행히도 한국어와 어순도 비슷하고 그다지 어렵지는 않네요. 스페인어는 편안하게 읽고 쓰고 환자하고 통역없이 얘기하는 데 4년정도 걸렸습니다. 제 환자의 반 정도는 스페인어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합니다. 제가 얘기하고픈 것을 정확하게 직접 전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외국어 구사력이 제일 유용한 경우는 여행지에서겠죠? 그 동안 배우고 익혔던 표현들을 써보고, 또 상대방이 알아들었을 때의 희열감!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원어민과 점검해보는 편입니다. 언어나 다 고유의 매력이 있고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발음이든 사고방식이든 표현방식이든 간에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문화를 알아가는 기쁨이 큼니다.

요즘은 성악 레슨을 받으며 드보르작(Antonin Dvorak)의 오페라 <루살카(Rusalka)>에 나오는 '달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을 원어민 체코어로 연습 중입니다.



9. 한국에는 자주 가시나요?

2019년까지는 거의 매년 한국에 갔었는데,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주로 카카오톡(kakao talk) 영상 전화로 부모님과 통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거주하거나 연수 나온 동창을 직접 만나면 너무 반갑죠. 다시 20여년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기분일까요. 한국 방송은 즐겨보는 정도는 아니고, 아내가 볼 때 뒤에서 일하면서 간혹 끼어들어 평을 하는 정도입니다.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 수련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래하는 것이겠죠? 올해는 특히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 부부가 전면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돌아보니 제 주변에서는 사실 학생때 막상 USMLE를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봤던 친구들은 하나도 안 오고, 얼떨결에 오게 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수련을 받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미국에 오고 싶은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USMLE를 치르고, 합격하고, 레지던시 수련을 받고 하는 것들은 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의사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먼저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밀고 나가십시오. 사회가 정한 틀에 박히지 않고 좀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스스로 노력한 만큼 댓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미국 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오늘도 이 땅에서 피워내는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이번 호에는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철 (49) 동문: 2022년 3월 2일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지익 (49) 동문: 2021년 6월에 별세하셨습니다.

임종식 (57) 동문: 2022년 3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배영섭 (58) 동문: 은퇴 후 텍사스에서 거주하시던 배 동문께서 2022년 3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미주동창회 27대 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이만택 (58) 동문 부인 윤말예 여사: 지난 2월 19일 윤말예 (Mary Lee, 이화여대 약학과 61년 졸업) 여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미주동창회 15대 (1986~87)을 역임하신 이만택 동문을 보좌함은 물론 항상 동창회 일을 참여, 지원하셨습니다.

조재동 (60) 동문: 1월 9일 주무시던 중에 stroke으로 86세의 일기로 작고 하셨습니다. 조 동문 가족은 서울대학교 인연이 깊은 집안으로 서울농대 학장이셨던 조백현 교수의 셋째 아들로 1935년 태어나셨고, 사모님도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서울의대를 마치고 생화학 교실에서 가르치시다 도미하셔서 Syracuse NY의 VA hospital에서 GI Pathologist로 가르치시며 오래 일하셨으며, 은퇴하신 후에도 CT에서 new lab set up, director 하시고, 다시 NY Quest에서 director로도 활동하시다가 지난 2016년 완전 은퇴하시고 후로리다로 이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철희 (61) 동문: 허리 수술만 수 차례 받으시고 쇠약하신 상태에서 수면상태에서 지난 2022년 3월 14일 별세하셨습니다.

윤좌병 (63) 동문: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시다 오래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박세준 (64) 동문: 뉴욕 Vestal에서 Family Medicine 전공으로 활동하시다 지난 2022년 1월 26일 별세하셨습니다.

유효명 (64) 동문: 오랜 지병 (중풍)으로 고생하시며 시카고 따님댁에서 치료하시다 2022년 3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손명하 (75): 지난 해 2021년 9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임종식 박사님의 부음을 접하고



근래 유난히도 대선배님들의 부음이 그치지 않고 많았던 것 같았으나 막상 가장 존경하던 선배님의 부음을 들으니 제 자신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의학계의 거목이셨으며 의학 방면의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작성한다면 한인으로서 단연 으뜸이셨을 줄로 생각되어짐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선배님과는 1970년대 후반부터 워싱턴 DC에서 인연을 이어왔고 재작년 로스앤젤레스 서울의대 학술대회 강연자로 오셨을 때 빈 것이 마지막 해후이었지요.

고인께서는 참으로 의학 이전에 삶에서 거인이셨지요. 현재 코비드-19 박멸로 맹활약하는 Dr. Fauci와 거의 동년배의 직장 동료로서 미국립보건원에서 암의 연구로 거의 일생을 보내시는 중에도 고국에서 연수차 오는 후학들의 지도와 편의를 돌보아주시는 물론 고국의 모교와 각 대학병원들의 고문으로 고국 의학발전에 숨은 공로자이셨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모교에서 워싱턴을 내방한 교수진들을 위한 환영연을 당신께서 애용하시던 베테스타 어느 중국집에서 했는데 음식들이 소소한 것들로부터 나중엔 근사한 것으로 나오더군요. 우리 일행은, 특히 필자를 포함해 그 당시 초년병들은 허겁지겁 처음 나온 음식들을 포식하니 정작 근사한 음식이 나왔을 때는 아무리 줘도 해도 더 이상 위가 감당을 못한 난감 지경인 일화가 있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왠, 중국음식은 나중에 진품(?)이 나오니 처음 나오는 음식은 가능하면 손 대지 말고 Passing 하라고 의(?)이 아는 척하지요, 한때 때문 그 반대의 순서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쉽게도 지불할 비용이 아까울 정도로 좋은 음식 손도 못 대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답니다.

선배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사모님 메리 여사(수년 전 작고)와 해로 하신 다복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릴 적 대퇴골 골수염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다 어느 시골 한의사의 치료(한약재)로 기사회생, 의학의 길로, 미생물학, 전염병의 대학자 전공후 박사님의 지도를 받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엔 흔한 polio(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걸로 오해했으나 실은 대퇴골 골수염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외국인에다가 불편한 몸이지만 사람됨과 예리하신 지성을 가진 선배님을 한눈에 간파하신 메리 여사가 주저 없이 반려자로 선택하신 해안이 돋보이셨지요.

선배님께서 마음껏 암 연구에 몰두하심과 사회적 공헌을 하신 배경엔 본인의 노력은 물론이겠지만 사모님의 몫 또한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저속한 표현이 되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雲雨之情을 천국에서도 메리 여사와 함께 지속하소서! 안녕히 가세요, 선배님, 임종식 박사님!

2022년 3월 9일 로스앤젤레스 근교 우거에서 후배 문성길 謹拜

Dr. YeongCheol Koh :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1949, the year before the Korean War (His medical education was during WWII era to Korean War) He retired from Air Force as a officer, and came to the USA. He practiced medicine in USA as a specialist in Thoracic Surgery, one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 physicians. He settled in Laguna Wood in Orange County, California. He was respected by everybody for his personal and professional integrity, honesty and clear straight forward mindset. I personally respected him greatly and he loved me as a junior.

He was enjoying a healthily living with his wife in Laguna Wood. I expected him to easily live to one hundred years of age, but on the night of February 28, he got up to go to Lab for blood test 2:30 AM (instead of 6:30 AM as scheduled). Apparently in some confusion at night, he was driving and hit a tree on street side. He was hospitalised with brain trauma. He was alert but soon he became comatose due to subdural hemorrhage. In the hospital, he was on life support system but his family decided to terminate it. Funeral and burial were conducted in nearby cemetery in Orange County on March 4, 2022. In PEACE indeed with family and friends.

Respectfully, Young Joe KWON March, 18, 2022

이철희(15회) 동기를 그리워하며

이철희 형을 알게 된 것은 필자가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였다. 나는 그 동기의 건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가까이 않은 거리에서 부산고등학교 동기로서 알게 되었을 정도이다. 더욱 가까워진 것은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함께 진학하게 되면서 친분이 두텁게 이루어진 셈이다. 동기들과 다른 대학, 특히 다른 여자대학 학생들과 모임이 잦았을 때 철희 덕분에 나와 가까웠던 친구들과 다른 대학 친구들과 모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참으로 즐거웠던 학창 시절이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기독교 학생 모임 때문이었으리라 기억한다. 이 모두가 철희 덕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서 복무할 때 더욱 가까워지면서 친구가 무르익었다. 필자는 해군에 철희형은 육군에 입대하였다. 필자가 철희 형을 부러워하고 존경한 것은 그의 뚜렷한 성격이었다. 주저함이 없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러웠다. 군에서 복무를 하며 또 부산 근처에서 복무하던 그와 진해에서 근무하던 나는 주말에 자주 부산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그의 집엘 가끔 방문할 기회도 있었다. 그래서 형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다. 필자가 해군에서 포항 해병 연대로 전근되면서 그것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나는 뉴욕을 거쳐 커네티컷으로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을 같이 다녔던 강영호 동기는 남미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를 거치게 되었다. 그때 나와, 이철희, 강영호, 고의걸,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의 동기로서, 네 사람이 한곳에서 만났다. 그 좋은 기회를 빌려 우리는 함께 페블비치에서 기념으로 골프를 한 라운드 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골프 티타임을 얻을 수 있어 꿈같은 하루를 페블비치에서 지냈다. 거기서부터 로스앤젤레스로 내려오면서 이름있는 골프코스에서 즐기고 그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은 다른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서 며칠 만에 다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꿈같은 여정이었다. 그것이 또한 철희 형과의 마지막 회유였으며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전혀 예기치 못했다. 친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 철희형의 소식을 물으면 알만한 사람들은 금방 '아! 그 72홀 친다는 사람 말이죠?' 했다. 그만큼 형은 골프를 즐겼었다. 그 때문에 허리를 다친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형을 오래 만나지 못한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나의 불찰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편 철희형과 나와 인연을 생각하면 탄탈루스(Tantalus)의 전설을 생각하게 한다. 철희 형은 나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떠났다. 나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며 형의 용서를 빈다. 형은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 고마우며 위안이 된다. 형은 나를 아껴주었는데 내가 형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숙고도 해 본다. 하나 지금은 기도라는 귀중한 선물이 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한다. 오히려 형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누가 아는가? 물론 형의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한다. 그런 축복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 동기 강창욱 (61)

친우 유효명(18회)을 보내면서

효명을 처음 만난 것은 70년 전 1952년 4월 부산 피난 경기중학교 1학년 1반에서였다. 그때 효명이가 바로 내 뒤에 앉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고 의과대학, 미국 생활을 같이 하면서 평생 동안 절친한 친구가 되어 지냈다.



유효명(오른쪽) 부부와 함께

효명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6.25 전에 남한에 정착한 것으로 기억한다. 집이 청량리 교회 바로 옆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과 지낼 때는 유별나게 기독교인 행세를 하지 않았고 남을 깊게 배려하며 잘 섞여 지내서 친구들 중 인기가 항상 좋았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와 어울려 술집에 가서 젊음을 과도하게 즐긴 것에 대해 일요일에 교회에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요일이 토요일 전에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전할 하니까 다음날 토요일에는 정숙하였을 것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난다. 대학시절 음악을 아주 즐겼고 그때 유행하던 당구, 포커도 우리와 같이 어울렸었다.

내가 도미하기 전 만나본 내 처의 동창 친구들 중 가장 인상이 남은 여인이 신동선이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효명과 동선에게 편지로 연락하여 서로 만나게 하였더니 곧 평생 연인되어 몇 달 후 서울에서 결혼하고 1967년에 도미하였다.

내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던 디트로이트에 있는 Detroit Memorial Hospital에서 인턴을 하게 되어 우리 부부는 자주 만나며 많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인턴 후 Pennsylvania General Hospital과 Detroit Psychiatric Institute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마친 후 Board certified Psychiatrist로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개업을 하다가 말년에는 Kalamazoo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은퇴를 즐겼었다.

효명은 평생 깊은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에서 중진 장로로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Midwest University of Seminary에서 신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바쁜 중에도 아프리카를 비롯해 남미, 중국 등 전 세계로 선교에 참가하였었다.

슬하에 1남 3녀가 있었고 큰 아들은 목사가 되어 휴스턴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다. 오페라 가수였던 막내딸을, 해산 중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잃었지만 깊은 신앙심으로 이겨내고 지내었다.

나는 1972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하여서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같이 여행하면서 재회를 하곤 하였다. 2015년 10월에 로스앤젤레스 은혜교회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7월에 Lake Tahoe에서 일주일을 같이 지낸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 뇌출혈 후 몇 달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시카고에 있는 큰 딸 집으로 이송하여 부인과 따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면서 병상에서 지내다가 지난 2022년 3월 16일에 조용히 소천하였다. 지금은 항상 원하였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동기 이흥표(64)

푸틴의 오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민주와 독재의 싸움이다

온기철 (71, 남가주)

2016년 트럼프는 예상을 뒤집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선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가 마감되었다. 이전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클린턴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는 달리 트럼프의 승리였다. 미국은 트럼프 지지세력과 반 트럼프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2020년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상하원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바이든 당선을 인준하는 과정을 폭력으로 뒤집기 위해서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게 했다. 쿠데타에 가까운 반역이었다. 미국이 푸틴의 계략에 말려들어가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사건이었다.

선거 일주일 전 힐러리 클린턴 선거본부, 민주당 국회 선거위원회, 민주당 본부 컴퓨터가 해킹 당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루비오의 컴퓨터도 해킹 당했다. 이중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정보가 인터넷에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킹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악선전이 돌았다. 해킹을 한 장본인들은 여러 명의 개인 러시아인 해킹꾼들이었다. 이들 뒤에는 푸틴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다. 물론 수상한 러시아인들이 트럼프 선거운동원과 측근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커들은 21개 주의 선거인 등록 명부를 들여다보았고 수천 명의 개인 정보를 가져갔다. 로버트 볼러 특검 수사팀이 트럼프와 측근들이 러시아와 협조하여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으나 증거를 잡지 못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하수인으로 의심되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일부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승리라고 축배를 들었다. 당선된 트럼프가 푸틴을 방문했다. 어느 기자가 트럼프에게 러시아 선거 방해 공작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물었다. 그는 푸틴이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옆에 있던 푸틴은 빙그레 웃었다. 푸틴은 트럼프의 은인이었다. 푸틴은 트럼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뽀뽀 문친 트럼프 지지자들로 인해서 미국 공화당이 타락한 것을 보고 푸틴과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인의 분열이 자기들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에 벅차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푸틴이 조지아를 침략하여 일부 영토를 강점하고 체첸에 러시아 괴뢰 정부를 세워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리아를 강점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단바스 지역 반군을 지원하여 내란을 조장해도 푸틴과 러시아는 크게 손해 보지 않았다. 러시아인들은 옛 소련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푸틴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80%의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지지했다.

푸틴은 20여 년 동안 공물여 온 우크라이나 합병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21일 푸틴은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하나(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쉽으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두 민족의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관계는 수 세기에 걸쳐서 같은 뿌리에서 이루어 졌고 공통된 시도, 결실과 승리에 의해서 굳어졌다. 우리의 형제 같은 관계는 자손 대대로 내려왔다. 형제애는 현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 마음, 그리고 핏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수백만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 우리가 함께 하면 몇 배 더 강해질 것이고 성공적일 것이다. 우리 한 민족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4천만이나 되는 큰 나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토가 평지이다. 폭우가 쏟아지지 않고 항상 적당한 강우량을 유지하여 농사짓기에 알맞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한다.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세의 영향으로 여러 민족이 얽혀 살고 있고 외국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이다.

슬라브족은 러시아 사람의 대명사이며 그들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이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푸틴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일체 주장의 역사적 근거는 키예프 왕국(공국)에 있다. 9세기에 슬라브 족은 동 북부 유럽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Kievan Rus(키예브 루스국)이라고 한다. 모스크바를 포함하는 러시아, 그리고 핀란드, 폴란드, 발틱 3국이 포함되는 북유럽과 우크라이나에 펼쳐져 있는 결속력이 약한 연방 국가였다. 루스국은 13세기에 몽골족의 침략으로 망했다. 그리고 슬라브족의 중심이 키예프에서 모스크바 공국으로 옮겨졌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각각 자기들이 슬라브족의 원조 국가라고 주장하는 역사적인 근거이다.



루스 왕국 멸망 이후 우크라이나 땅에는 갈리치아-볼리니아 공국이 존재했으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그 후 러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의해서 영토 분할이 오고 가고 한다.

20세기 초에는 서부 우크라이나는 오스트리아가 동부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다. 1917년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 이후 이 두 지역을 합쳐서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가 탄생했으나 1922년 서쪽은 폴란드로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되었다.

Holodomor(to kill by starvation)

스탈린은 1932년에서 1933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굶어 죽였다. 1930년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하여 먹고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스탈린이 개인소유의 땅을 집단농장에 내놓고 일정량을 국가에 바치고 농장원들끼리 똑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했다. 많은 농부들이 이를 거절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멀고 먼 시베리아로 이주하기도 했다. 그곳에서는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멀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근까지도 러시아로 이주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국에서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다 잘 살

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에는 2백만이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기근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소련 전역에서 일어났다.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람을 모두 아사 시키려고 했다.

(genocide)
기근이 심한 데도 공동농장 공출량을 모두 거두어 갔다. 러시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곡식을 외국에 수출까지 했다. 먹을 양식이 없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 먹었다.

(cannibalism)
1933년 6월 한 여의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 먹히지 않았지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무렵에 많은 먹잇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자신이 없네.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죽었다네. 다음에는 도둑질하기를 거부하고 몸을 팔지 않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 죽었다네. 그다음에는 시체 먹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죽고, 동료들을 죽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죽었다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잡아먹기를 거절한 부모들마저 죽었다네."라고. (wikipedia)

스탈린 굶어죽이기 작전으로 적게는 3백만 많게는 천만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사했다고 한다.

소비에트 연방내 우트라이나의 위상

소련 내의 연방국은 모두 15개국이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다. 러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 소련의 대부분의 농산물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스탈린은 농업이 발달한 우크라이나를 공업화 시켰다. 농부가 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 수확이 줄었다. 이와 같은 공업화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 데 한몫했다. 제철소가 건설되어 막대한 양의 철강을 생산했다. 로켓 엔진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 기술이 북한에 전수되었다고 한다. 핵 누출로 유명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도 우크라이나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방어 산업 기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소련이 망할 무렵에 우크라이나는 농업과 공업이 발달한 보물 같은 나라였다.

소련의 붕괴와 우크라이나 독립

소련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핵무기를 설치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가 설치되었다. 세계 3대 핵보유국이 되었다. 1922년에 만들어진 소련은 1991년에 붕괴되었다. 국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산업을 계획하여 똑같이 나누어 주는 공산주의는 사람의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했다. 생산이 감소되어 국가는 국민에게 나누어줄 것이 부족했다. 국가는 파산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핵을 모두 러시아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 독립을 보장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일부라도 가지고 독립했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핵을 반납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자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서윤석

살얼음판 피난길 가는 애야 얼마나 무섭냐?
 마을은 잿더미가 되고
 길가에서 홀로 흘리는 너의 눈물
 어릴 때 흘리던 우리의 눈물이구나
 얼마나 춥고 배고프냐?
 그래도 굶세어라 그래도
 새봄이 찾아오면
 우크라이나 어린이 함대가
 크림리아 반도에서 흑해, 지중해로
 멀리 대서양으로 파도를 헤치며 뻗어 나갈 때까지
 우크라이나 어린이 만세

A letter to a child in Ukraine

Seo, Youn Seok

How scared are you, dear little child?
 You're on an icy road to seek refuge
 Your village is in ashes
 You drip tears at a road all alone
 The same tears that we did
 When we were young
 You face the bitterly cold weather
 And the hunger
 But stay strong and brave
 Till a new spring comes to you
 Then a powerful Ukraine Children's fleet
 Will spread out from the Crimean Peninsula,
 To the Black Sea
 And will pass the wave of the Mediterranean Sea
 Toward the Atlantic Ocean all the way
 May God bless the children in Ukraine!

은 "이제 러시아는 망했구나" 할 정도로 실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이었고 큰 재산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전 공산당 간부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지독한 부패에 시달렸다. 우크라이나의 청렴도는 세계 144위이다.

우크라이나의 서부는 친서방 국수주의 편향이고 동부 단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리아 지역은 러시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정권도 친서방을 좋아하는 대통령과 친 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바뀐다. 한편 러시아는 자기 쪽의 인사를 집권 시키려고 가진 술수를 쓴다. 서방 측은 부인하지만 러시아와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대통령 Leonid Kuchma는 2004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0년 이상 장기 집권했고 수많은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Viktor Yanukovich를 추천했다. 러시아가 선호하는 후보였다. 야당 후보는 Viktor Yushchenko였다. 그는 유럽연합 가입을 원했다. 친서방 정책을 약속했다. 엄청난 부정 선거인데도 친 러시아 후보 야누코비치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야당과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에서 친서방 후보 유쉬첸코가 승리했다 (Orange Revolution). 2010년 대선이 실시되었다. 오렌지 혁명 때 동지였던 Yulia Tymoshenko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Yushchenko에 대항하여 출마했다. 이 틈새를 노리고 Yanukovich가 또 대권에 도전했다. 분열된 친서방파는 친러파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2013년 야누코비치는 유크레인과 유럽 연합과의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대규모의 데모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여러 정부 건물을 점령했다. 2014년 2월 의회는 야누코비치를 탄핵했다. 그는 의회의 결정에 <다음면에>

남가주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여서 겨울철에 비가 종종 내린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이마다 다를 것이다. 어린이들은 나가 놀 수 없으니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비가 오는 것이 운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연인과 한 우산 속에서 비 오는 날 걸어간다면 그보다 더 낭만적인 모습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셀부르의 우산'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미모의 여주인공과 'I will wait for you.'라는 주제가 덕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영화다. 그러나 주제가의 제목과는 다르게 영화에서의 여주인공은 기다릴 마음은 있었겠지만 자기의 남자친구를 끝까지 기다려 주지는 않았다. 노년층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비를 맞으며 구태여 나가 다니기보다는 집구석에 앉아서 과거를 생각해 볼지도 모른다. 노인이 될수록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사실 과거를 회상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노인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도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내가 사는 LA 근처에는 겨울에도 눈은 오지 않지만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지면에 비가 내리면 산에는 눈이 쌓인다. 비가 그친 후 구름 사이로 나오는 햇빛에 반사되면서 드러나는 흰 눈에 덮인 웅장한 산을 보면 유럽의 알프스가 부럽지 않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구의 북쪽 지방은 온 천지가 하얀색으로 덮이는데 여기는 높은 산들만 흰 눈으로 덮여 있어서 특이한 경관을 이룬다.

눈은 왜 흰색일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눈 내린 경치를 감상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흰 눈은 나무에 눈꽃을 피게 하고 언덕에 세워진 작은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예전에는 하얀색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런대로 세상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색깔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 젊었을 때는 파란색 계통을 좋아했는데 좀 차갑게 느껴져서 이제는 초록색 계통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듯하여 더 좋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는 몰라도 자동차의 색깔에 흰색이 많은 것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흰색이 깨끗하고 순결해 보인다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 같다. 푸른 청바지에 새하얀 블라우스는 멋있는 조화를 이룬다고 나는 생각해 왔다. 하여간 흰 눈이 내려 천지를

하얗게 덮으면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 다.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조그만 산길을 뚝뚝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기분은 어떨까? 같이 걷는 일행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흰 눈 사이로'의 '징글벨' 노랫소리가 어울리는 상황이다. 흰 눈은 사람의 마음을 동심으로 몰고 가는 듯하다. 누구에게나 어렸을 적의 기억이 있다. 아주 나이가 많아져 기억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어릴 적의 생각은 잘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첫눈이 내렸을 때 강아지와 같이 놀던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얼어붙은 작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탈수도 있었다. 이런 기억들은 나이가 먹어서 잘 정비된 실내 스케이트장이나 스키장에서 보냈던 기억보다 더 즐거웠던 순진하

던 때의 경험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눈이 적게 오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많은 곳으로의 여행은 인기가 있다. 몇 해 전 1월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지역으로 오로라 사진을 찍으러 간 적이 있었다. 섭씨로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그 목적 외에 누가 오겠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은 나 혼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로라와 쌓인 눈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겨울에 산에 내린 눈만 보다가 온천지가 발이 푹 빠지는 눈 위를 거닐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영화 'Love Story'에 나오는 장면처럼 눈 위에 드러누워 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상황과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아프리카 남서쪽에 있는 '나미비아'라는 나라에는 해변가까지 넓게 펼쳐있는 거의 붉은색의 붉은 사막이 있는 곳이 있다. 거기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이 어울려져 있는 경관이 하도 신기하여 나에게서 꿈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되어 있다.

계절을 빛으로 나타낸다면 꽃이 많은 봄은 붉은색,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은 초록색, 단풍이지는 가을은 주황색 그리고 눈이 많은 겨울은 흰색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각 계절마다 좋아할 이유가 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어서 좋고, 여름은 해변가 풍경, 가을은 단풍과 낙엽이 있어 좋다. 겨울은 같이 어울려 눈을 밟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다. 어느덧 겨울은 지나가고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다. 따스한 봄볕에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 보았으면 좋겠다.

사진: 나무집 '비온 후 로스앤젤레스 풍경'

<전면에서 계속> 불복하고 러시아 비밀 경호원의 보호 아래 러시아로 망명했다 (Euromaidan). 푸틴은 그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주고 러시아에 살게 했다. 그는 푸틴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할 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하여 현 젤렌스키 정권이 몰수된다면 새로 들어설 허수아비 친 러시아 정권의 수반 후보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한다.

서방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

전 소련 연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을 유지하려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손을 내밀고, 러시아는 이들을 러시아 세력권에 넣으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유럽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만들어 소련의 세력 확장을 막았다. 소련은 이에 대항하여 바르샤바(Warsaw) 조약 기구를 만들어 동구 위성국가들을 보호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구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되었고 동구 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나토는 건재했다. 러시아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구도였다. 그래서 나토로부터 나토의 세력을 독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옛 소련 위성국가와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다. 서방 또한 그들의 바람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2004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는 물론 발틱 3국(Estonia, Latvia, Lithuania)이 나토에 가입했다. 유럽연합은 2008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도 나토에 가입시킬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푸틴은 즉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하는 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라고 경고했다. 수개월 후 푸틴은 조지아를 침공했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에 끌어들이는 일은 러시아를 공격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꺼려 했다. 그러나 소련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은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가 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럴수록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에 넣으려는 압력은 가속 되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는 비교도 안되는 화력과 15만 대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일 이 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러시아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은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은 러시아와 러시아 올리가크(Oligarchy)에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러시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루블화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맥도날드 등 중요한 미국과 유럽연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과 서방 국가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가 고립되는 듯 보이고 있으나 푸틴의 신음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북한과 이란에게도 강력한 썬션(Sanction)을 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 글이 시계탑에 실릴 즈음에는 푸틴이 권좌에서 물러날지도 모르지만 전례를 보면 독재자에게 썬션은 숨 방망이이다.

러시아의 청렴도 순위는 세계 127위이다. 지독히 부패한 나라이다. 돈 많은 기업가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사업과 정치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을 Oligarchy라고 한다. 푸틴 정부는 Oligarchy government 이다.

FSB(Federal Security Service)는 옛 소련의 KGB를 승계한 러시아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푸틴은 FSB에게 우크라이나 국내에 흑색선전을 하여 러시아군이 쳐들어가면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러시아군을 환영하고 꼭두각시 정부를 지지하게 여론 조성을 하라고 지시했다. 침공 전에 FSB는 여론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푸틴이 원하는 맞춤형 보고를 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나치 정부라는 러시아 흑색선전을 믿는 우크라이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침공한 러시아군을 환영하기는커녕 시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훈련하러 온 줄 알았는데 전쟁 터로 내몰렸다"고 말하는 러시아 병사들이 많

이 있다. 탱크를 버리고 도주하는 병사들도 있다. 집시들이 이 탱크를 훔쳤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이 준 안티 탱크 포는 끝이 보이지 않게 한 줄로 선 러시아 탱크를 하나 하나 박살을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케예브를 포위한 지 일주일 이 지나도 러시아군은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빙기인 3월이 되면 얼은 땅이 녹아서 진흙탕이 되면 탱크가 도로를 벗어나면 움직일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탱크는 도로에 한 줄로 서야 한다. 외길에 한 줄로 서 있는 탱크는 앞 차가 못 움직이면 뒤 차는 고장 난 앞 차가 치워질 때까지 꼼짝 못 한다. 탱크는 앉아있는 오리(sitting duck)이다. 전투 훈련이 부족한 러시아 병사들의 탈영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파괴된 탱크의 숫자에 탱크 한 대에 타는 인원을 곱하여 러시아군 사망자를 추정했는데 약 7,000명이라고 한다.

전쟁을 하려면 포병과 공군이 지상군과 연락하여 포격과 폭격이 끝난 다음에 보병이 공격해야 하는데 서로 연락이 잘 안 되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토 측의 통신교란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군의 자책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군은 보급에 애를 먹고 있다.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10%-20%로 추산하고 있다. 10% 이상 병력이 손실된 부대는 전투 불능이라고 한다. 보충병이 와야 부대가 살아난다. 러시아 국내의 반전 분위기에 짐작하기도 힘든 모양이다. 푸틴은 시리아에서 높은 보수를 주고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푸틴은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의 은인이 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어 젤렌스키의 리더십 또한 국내외의 절찬을 받고 있다. 그의 미국 상하원 연설은 2차대전 당시 처칠의 연설을 능가한다는 평이다.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푹푹 멍친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은 종이호랑이 같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잘 싸우고 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은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를 파괴시키고 민간인을 죽여서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가 요구

하는 조건을 들어주게 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젤렌스키의 리더십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에 힘입어 전쟁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푸틴의 비인간적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전 세계 사람들을 분개하게 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푸틴과 시진핑이 북경 동계 올림픽에서 만났다. 둘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구 소련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일종의 독재국가 연합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해진 푸틴은 시진핑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시진핑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믿기 힘든 이야기이다. 오늘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만약 러시아를 도우면 중국에 심각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푸틴을 스마트하다고 극구 칭찬했다. 이에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얼마 후 트럼프도 푸틴을 비난했다. 전쟁은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한목소리로 푸틴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원조에 찬성했다. 전쟁은 미국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세상을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로 갈라놓는 계기 될 조짐이다. 트럼프를 앞세워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푸틴은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쟁 전에 중국을 우방으로 확보했다고 좋아했지만 중국에게 러시아의 치부를 드러내어 중국이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반면에 푸틴의 망발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의 리더이며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전쟁은 푸틴의 오산이었다. 미국을 깔본 푸틴의 말로가 모든 독재자의 몰락의 운명을 보여 줄지도 모른다. 시진핑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성서 베끼기

주 광 국 (68, 버지니아)



네 복음서 성경 필사하기. 나에게서는 자신이 있는 숙제였다. 오랜만에 많은 글씨를 쓴다는 것에 약간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Fairfax, Virginia에 있는 성 정하 상 바오로 성당의 공동체 창설 30주년 및 본당 승격 20주년 기념행사로 2016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신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였다. 사순절 동안 또 성서를 필사하는 동안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려는 신부님의 배려였다. 2016년 9월 25일의 기념행사 중 하나인 성경 필사 노트 전시에 맞춰 네 복음서 필사를 끝내야 했다.

어쩌다 들려오는 잡음 소리에 정신이 집중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서 쓰는 동안에는 모든 잡념을 끊을 수 있었다. 글자 한 자 틀릴까 봐 또 달라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는 이제 자신이 없어서 몇 번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써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보면서 읽으면서 쓰면서 하는 과정에 성서 내용을 음미하고 이해하고 머리에 더 새겨지게 할 수 있었다. 성서 쓰다가 눈이 피로해지면 돋보기안경을 벗어 놓고 눈가를 비비면서 휴식을 취하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옛일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책 베끼는 일은 많이도 해보았다. 초등학교 시절 때 선생님이 내준 교과서나 참고서 베껴오는 숙제가 무척 많았었다. 때로는 졸면서 책을 베끼기도 했다. 글자를 똑똑하고 알아보기 쉽게 예쁘게 쓴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보았다. 의예과 시절에 군대 간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동료 사병이 걸봉투의 글씨를 보고 여자친구한테서 왔다고 해서 내기를 해 점심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과대학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책자를 만들었다. 요즈음 같으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자를 쓴 다음 복사하면 되지만 50년 전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원시적인 방법밖에 없었다. 투명한 종이에 초를 입힌 특수원지를 가리방(쇠판)에 대고 철펜으로 써야 했다. 너무 세게 눌러 쓰면 원지가 찢어져 낭패를 본다. 나중에 이렇게 쓴 원지 위에는 롤러에 잉크를 바른 다음 눌러 밀어서 프린트하기 때문에 글자를 똑똑 눌러 써야만 했다. 가리방 철펜이 눌러서 닿는 오른손 셋째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퐁퐁 부어오르곤 했지만, 학생 수에 맞게 백 권의 강의책자를 만들어질 때마다 무척이나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다. 때로는 학생들 모임의 회보나 선배들의 박사논문을 책자로 몇 십 권씩 만들기도 했었다.

성서 베끼기는 이번이 나에게 두 번 째였다. 첫 성경 필사는 버지니아로 이주하기 전 뉴욕주 버펄로에서 했다. 버펄로에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오신 상주 한인 신부님이 첫 사순시기인 1998년 4월에 네 복음서 중 가장 짧은 마르코복음서를 필사하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이 일 저 일 때문에 신부님이 만들어 주신 계획표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하였다. 하루하루 베끼기로 주어진 분량이 있었지만 늦게 시작한 터라 퇴근 후 틈나는 대로 쓰게 되었고 한가한 주말 아침에 열심히 써 내려갔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주일이나 지나면서 밀렸던 과제를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고 일주일이나 더 지나면서 조금씩 앞지르기 시작했다. 부활절 일주일 전 성지 주일에는 마르코복음의 마지막 글자 '아멘'을 쓸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공관 복음서가 아닌 요한복음서도 계속해서 써 볼까 했으나 일주일 동안에 끝낼 수가 없어 공책을 돌려받은 다음 시작하기로 했다. 부활절 자정미사 때 많은

교우들이 쓴 마르코복음서 필사본을 봉헌할 때는 신부님과 신자들의 흐뭇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공책을 돌려받자 곧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다. 그해 6월 어느 날짜 평화신문에 한국의 춘천교구는 곧 다가올 2000년 대희년을 맞아 교구 내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맛 들여 쇠신되도록 하기 위해 '필사본 성서 한 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성서 전부를 다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약 성서만 전부 필사하는 것으로 이 운동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은 필사를 끝냈으므로 마태오복음서부터 틈틈이 적어 내려갔다. 퇴근 후에 가끔 성서를 필사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주말에 많이 써 내려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니 여러 권의 필사 공책이 쌓여갔다. 드디어 그해 성탄절에는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 구절인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를 써서 긴 여정의 끝을 장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7권의 공책에 앞뒤로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예쁘게 쓴 나의 신약 성서 필사본을 만들었다. 어느 날 대모님이 와서 성서 필사본을 보고 노트 한 권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싶다고 하여 마지막 성서인 요한 묵시록의 필사본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하여 완성품을 위해 요한 묵시록을 다시 썼다.

첫 번째 성경 필사 시작하기 두 달 전인 1998년 2월에 예수님과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 버펄로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곳, 자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회당,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기적을 보인 곳, 갈릴리아 호수, 골고타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하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바울로 사도의 선교 지역 등이 모든 장소와 기록들이 낯설지 않고 친밀하게 되었고 더욱이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성지를 순례할 때마다 해당되는 마태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을 읽어주고 보충 설명을 해준 본당 신부님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쏙쏙 새겨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특히 우리 성지순례를 맡아온 안내자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부가 되지 않고 신랑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내를 맡고 있어 더 많은 성서 지식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타볼산을 바라보며 달리던 순례 버스에서 이야기해 준 유머는 잊을 수가 없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은 '고스톱'에 열중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고스톱'을 하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거절하자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에 놀라 예수님도 함께 '고스톱'을 하게 했으나 결국 제자들에게 돈을 다 잃고 하산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하고 명령하셨다는 그 유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필사하면서 성지순례 때의 일들이 떠올라 성서가 훨씬 재미있고 믿음이 더 생기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

책 베끼는 일에는 이력이 난 나지만 네 복음 성경 필사는 조금 달랐다. 이번에는



漁歌子 (어가자) 어부의 노래

張志和(장지화)

정 관 호(63, 대뉴욕)

- 一 西塞山前白鷺飛, 桃花流水鱖魚肥
서새산전백로비하니, 도화유수궤어비를
서새산 앞에 백로가 나르니,
복사꽃 흐르는 물에 궤어가 살찐도다.
- 青箬笠, 綠蓑衣, 斜風細雨不須歸
청약립 녹사의하니, 사풍세우불수귀를
푸른 대엽질 삿갓에 녹색 도롱이 옷입고,
비낀 바람과 가는 비에 돌아가지 않으리.
- 二 雪溪灣裡釣魚翁, 舴艋為家西復東
삼계만리조어옹은, 책맹위가소부동은.
삼계 굽이의 낚시옹은 거룻배를 집삼아,
서편과 동편을 왔다 갔다 하네.
- 江上雪, 浦邊風, 笑著荷衣不嘆窮.
강상설 포변풍하니, 소착하의불탄궁을
강 위에 눈 내리고 물가 바람 불건만,
웃으며 연옷 입고 가난을 한탄치 않네.

注釋(주석): 西塞山(서새산)절강성 호주시 서면에 있다. / 白鷺(백로)일종의 물새 / 桃花流水(도화유수)복사꽃 만발한 계절 봄물이 넘치는 시절을 말함. / 箬笠(약립)대잎을 짠 삿갓. / 蓑衣(사의)풀이나 종려나무 껍질로 만든 비옷. / 響(삼)溪: 절강의 물 이름. 浦(포) 물가. / 荷衣(하의): 연잎으로 짠 옷이니, 은사의 의복을 가리킨다. / 舴艋(책맹): 거룻배 혹은 작은 배. 灣(만): 물굽이

賞析(상석): 이 시는 강남 물가 봄날 낚시하는 정경을 그렸다. 선명한 산빛과 물색이며, 어옹의 형상 등 한 폭의 시로 그린 산수화다. "서새산 앞에 백로가 나르니"는 서새산 앞에 지점을 가리킨다. 백로는 한적한 모습의 상징이며, 백로는 자유롭게 날고, 또 어부의 유한 자득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다음구에서 "복사꽃 흐르는 물에 궤어가 살찐다"함은 이 속에서 복사꽃과 푸른 물이 서로 비추고, 늦은 봄 서새산 앞에 호수의 빛과 산색을 표현하였고, 어부의 생활환경을 장식하였다.

제3과 제4구는 푸른 대 삿갓과 녹색의 도롱이 어비를 걸치고, "빗겨 부는 바람과 가는 비에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어부의 모습이다. 그는 삿갓을 쓰고 비옷 입고, 비바람 속에서 스스로 즐거워서 돌아감을 잊었다.

이 시 전체는 색이 선명하고 밝고 아름다우며, 용어가 활발하고, 어부의 유한 자재한 생활 정취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張志和(장지화): 시인 장지화는 당조 금화인으로 조정에서 작은 관직에 근무했고, 후에 강호상에 은거하여, 자칭 "연과 조도 즉 연기 긴 파도 위에 낚시하는 무리"라고 하며, 이 어부 생활의 표현을 빌려 자기의 은거 생활의 취미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漁歌子》又名《漁父》或《漁父樂》즉 어가자, 어부, 혹은 어부락이란 민간의 고기잡이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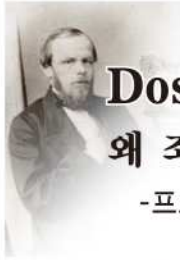
성당에서 필사 노트를 사서 썼으므로 모두가 겉모양은 같았고 노트 종이도 좋아서 편안하게 써 내려 갈 수 있었다. 이 성서를 편안하게 필사하면서 몇천 년 전 유대인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성서를 힘들게 썼을 것을 생각하고 비교해 보기도 했다. 또 초기 신앙인들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성서를 필사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진 배경 안에서 쓰인 성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성서를 읽고, 성지순례 때를 생각하며, 또 성서를 베껴 쓰는 것은 글자 한 자, 한 구절을 음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므로 성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네 복음서 성경 필사처럼 재미있고 쓰는 시간이 기다려진 적이 없었다. 쓰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안정과 평화가 와서 자꾸만 쓰고 싶어졌다. 더군다나 은퇴했기 때문에 처음 성서 필사할 때처럼 시간에 쫓들리지 않고 여유 있게 성서를 필사할 수 있었다. 요

한복음 20장에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쓰여 있다.

나도 이 성서를 필사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성서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또 어느 한 신부님이 "성서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가장 가까이 두고 늘 새롭게 만나는 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서 필사본에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성 정하 상 바오로 성당의 공동체 창설 및 본당 승격 기념행사의 하나인 성서 필사 노트 전시에 놓여 있었던 나의 네 복음서 필사 노트 두 권과 20년 전에 전부 베끼 7권의 신약성서 필사 노트와 함께 버펄로 교구 주교님으로부터 받은 기념패인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Hand-writing New Testaments'가 나의 책장을 빛나게 하고 있어 매우 흐뭇하고 나의 중요한 가보로 장식하고 있다.



Dostoevsky는 왜 죄인이 됐나

-프로이트의 막말

이수인(63, 남가주)

과학의 발달이 안된 시절에 의료인들의 횡포와 무 개념은 wikipedia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프로이트(Freud)는 다리 통증과 생리통을 호소하는 Emma Eckstein을 이비인후과 Fliess에게 소개했다. Fliess는 'nasogenital connection'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sexuality가 neurosis의 원인이라는 신념을 공유했다. 통증 제거를 위해서 그는 Emma의 nasal concha를 제거했는데 수술 후 출혈이 심했다. 프로이트는 그 원인이 히스테리로 인한 'wishbleeding'이라 설명해 줬다.

독일에서 도스토옙스키 번역본을 발견했는데 프로이트에게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서문을 부탁했다. 자신이 trivial paper라고 부른 이 서문의 제목이 '도스토옙스키와 부친 살해(patricide)'였다. 프로이트는 도스토옙스키가 neurosis 환자이며 손상된(compromised) 윤리주의자이고 죄인이라고 썼다.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epilepsy를 히스테리로 인한 'affective epilepsy'라 부르고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히스테리설을 기초로 도스토옙스키의 간질을 설명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다.

왜 그가 죄인이 돼야 했는지 알아보자. 그에겐 네 가지 '죄'가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시골 귀족 출신의 의사 아버지는 성질이 까다롭고 인색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아버지에게 대한 증오심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농노들

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 자신의 부친 살해의 환상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범죄자들에게 그의 동정과 애정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학대가 필연적이어서 이것이 응징의 의미로 간질 발작이 나타났다는 주장이었다.

모츨스키는 도스토옙스키를 영혼을 파헤친 냉혹한 천재라 불렀고 질서의 체계 밑에서 꿈틀거리는 케리어스를 서사화했다고 말했다. '죄와 벌'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적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살인까지 정당화되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허무주의적 초인 사상을 그렸는데 이런 이야기는 윤리주의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전제들이었다.

프로이트는 그의 이런 강렬한 서술들은 저자 자신의 구원의 행위였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부친 살해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그가 소설을 그토록 치열하게 쓰게 된 이유라 했다. 허구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유를 찾았고 Aliocha의 창조는 그의 내면에 천사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이에 대한 동경 때문에 창조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의 가족력을 보면 간질환자가 된 것은 그의 '죄'가 아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선조와 그의 아들도 간질환자였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설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시절에 프로이트가 그의 발작이 히스테리로 인한 'affective epilepsy'라 명명한 진상을 알아보자. 그 시절엔 간질을 기록할 수 있는 뇌파검사도 치료제도 없었다. 'affective epilepsy'는 그의 가족력(biographic knowledge)을 설명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간과했다.

첫째 그의 간질 발작이 Strakkhov와의 대화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는 경련했고 입에 거품을 품고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발작을

기억하지 못했다. 둘째 도스토옙스키는 epileptic figures를 그 작품에 많이 등장시켰다. 단편 'The landlady'의 노인 Murin의 발작엔 sensory aura, dejavu와 발작 뒤의 극심한 피로감 등을 적었다. 'The idiot'과 'Demons'에도 간질환자가 나온다. 더 유명한 것은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Smerdiakov가 경험한 발작의 서술은 더 설명할 수가 없다. 간질발작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안 했으면 쓰기 어려운 세부 내용들이고 'affective epileptic'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나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좀 더 자세히 읽으면서 temporal lobe seizure의 증상인 automatism의 서술 같은 문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Smerdiakov가 숲속을 걸어간다.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가 속고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안 했다. 무엇을 물끄러미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와 몸을 부딪쳤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문장은 automatism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프로이트가 이 작품들을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읽었더라도 그의 무모한 예세이는 쓰지 안 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도스토옙스키에게 또 다른 공격을 했다. 'Dostoevsky called himself an epileptic.' 더 지나친 욕도 했다. "미래의 인간 문명은 그에게 감사할 일이 없을 것이다. Wikipedia는 프로이트를 Austrian neurologist로 소개를 했는데 그가 간질에 관심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그는 neurology를 일찍이 떠났다.

프로이트는 부친 살해를 취급한 대작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지만 '오이디푸스 왕'의 소포클레스나 '햄릿'의 셰익스피어에게 같은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안 했다. 왜 그랬을까?

연주자들은 리스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리스트 역시 공감각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칸딘스키는 1909년 토머스 하르트만이란 작곡가의 도움으로 6 장면으로 구성된 '색채-광선 오페라'인 '황색 음향'(Der gelbe Klang)을 발표했다. 한 악장으로 된 이 오페라에서 대사는 14줄에 불과하지만 수백 개의 조명 신호가 표시되어 있다. (일차 세계대전을 발발로 인해 작가는 생전에 계획되었던 작품의 공연을 보지 못했다.)

화가 마티스는 음악을 통해 시각적 현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느 누구도 베토벤의 교향곡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브리젠이란 화가는 베토벤의 8번 심포니를 6개의 흑백 장면으로 표현하려 했다. 스미스란 여성 화가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1번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렸다. 비교적 잘 알려진 미국 화가 조세프 스텔라 역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더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작곡가 무소르그스키는 친한 친구였던 화가 하르트만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열린 유작전을 돌아본 후 급히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악이다. (원래는 피아노곡이었으나 후에 라벨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했다.)

레스피기의 '보티첼리 그림 3점'은 글자 그대로 보티첼리의 명화에서 받은 인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바다 가운데서 조개껍질을 타고 올라오는 '비너스의 탄생' 작품도 있다. '동방박사 세 사람'에서는 옛날 캐럴이 흘러나온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은 작곡가가 직접 마약(아편)을 복용한 후 환각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다. 작품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각 부분마다 환각 상태에서 본 장면을 부제로 설명해 놓았다 같은 프랑스의 작곡가로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현대의 neurologist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발작이 medial temporal lobe seizure였다고 믿는다. Seizure focus가 anterior insula cortex까지 전과되면서 그가 경험한 'rapture'를 포함한 여러 형태로 나타난 발작의 세부 증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nsula cortex의 risk prediction coding system error는 그의 도박벽도 설명할 수가 있다고 믿는다. 그가 간질의 고난을 무릅쓰고 지친 채 '카라마조프 형제들'같은 대작을 완성할 수 있던 것은 우리에게 기쁘고 행운이다.

프로이트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 예세이는 정신분석을 사이언스로 정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설은 그의 스승인 앙리 가스토(H. Gastaut)를 포함한 당대의 또는 현대의 neurologists에 의해 부정됐다.

다른 문제는 한국의 소설가를 포함해서 프로이트의 모든 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부정된 설이 전파되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멜랑콜리

김정용(73, 대뉴욕)

흑(黑)
담즙,
쓸개
쓰디 쓴

겨울 아침
흰 눈 위에
아직도 뜨거운
블랙커피
혀끝에서 쓴맛이
코끝으로 스미는 향과 함께
가슴 안으로 들어온다

모든 슬픔의 기억에는 향기가 있다
다만
속으로 저미는 향내를
마음을 열어
말을 수만 있다면

유명한 마스네는 공감각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교향시 'Visions'도 시각적인 환상을 기도한 작품이다.

미국 출신으로 주로 영국에서 활약한 화가 제임스 휘슬러는 특히 미술과 음악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았다. 그는 많은 작품에 '하모니', '심포니', '녹턴'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 특히 야상곡을 의미하는 '녹턴'에는 애착을 갖고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거슈윈이 작곡한 명곡 '랩소디 인 블루'는 휘슬러의 그림 'Nocturne in Black and Gold'을 보고 개명한 곡이다.

벨라스케스, 보티첼리, 와토, 휘슬러 같은 화가의 그림들도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근대 미술의 거장 클레의 미술 작품 '재잘거리는 기계'는 수많은 작곡가들의 영감을 불러 일으켜 유명하다. 알렉산더 볼디의 유명한 추상 조각품인 모바일 시리즈에서 흑시 풍경 소리라고 들린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아마 공감각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만인 피카소의 대작 '게르니카'에서 독자들이 전쟁의 비참한 함성과 군마의 비명소리를 듣는다면 이 작품도 미술을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모니와 조화, 대위법이나 둔주(Fugue), 바탕색이나 주조(主調), 리듬, 색채와 형식 등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음악과 미술은 서로의 상호 길항작용을 통해 표현을 무한히 다양화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음악과 미술 사이의 교감

정유석(64, 북가주)

드뷔시의 교향곡 '바다'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곡'은 듣고 있으면 이 작품들은 자주 시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Ma Vlast)에서는 모라비아 삼림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작은 시내가 되어 조약돌 사이를 흐르다가 다른 물줄기를 만나 강을 이루고 또 다른 강을 만나 몰다우 강이 되어 도도하게 수도 프라하를 관통하여 이윽고 엘베 강으로 빠지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표제음악이나 영화음악은 흔히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사실 음악과 미술은 오랜 세월을 걸쳐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선사시대에 이미 원시인들이 동굴 벽에 타악기인 북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림에다가 악기를 그린 점이 눈에 뜨인다.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은 얽은 토기 조각에 하프 연주자를 새겨 놓았다. 그리스의 많은 항아리 유품에서도 자주 악기들이 등장하고 악기를 타는 악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의 수도승인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에서는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 장면이 유명한데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기타를 켜는 여인을 그렸다. 또 사실주의의 대가 코로는 맨돌린을 그렸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샤갈은 바이올린, 피카소는 기타 그리고 뒤피는 전체 오케스트라의 연주 모습을 그림으로 다뤘다.

이렇게 음악과 미술은 항시 서로 교류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공생

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상대방 분야에서 풍성한 결과를 맺게 했다. 두 예술 사이에는 원래 스타일, 긴장과 완화, 대조와 조율, 형태와 구조 같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1백년간 두 분야는 같이 색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바실리 칸딘스키란 화가는 각 악기마다 다른 색깔을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예를 들어 트럼펫에서는 노란색, 비올라에서는 주황색 그리고 튜바에서는 붉은색을. 이런 현상을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이라고 부른다. 그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완성시킨 다음 완성된 작품들에서 '즉흥', '인상' 또는 '작곡' 같은 음악적 표현을 제목으로 삼았다. 특히 '작곡'(Composition)이란 제목을 좋아해서 같은 이름으로 거의 20에 달하는 연작을 그렸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며 작곡가인 스크리아빈은 각 음계를 각기 다른 색으로 인지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을 동시에 사용하는 전위적인 멀티미디어 예술가가 되었다. 1919년에 발표한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란 교향곡에서 오케스트라, 피아노, 오르간, 합창만이 아니라 'clavier a lumieres'란 소리 없는 건반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색채를 다양한 형태로 스크린에 비추었다. 색깔이 공연장에 흘러넘쳤고 백색 광선은 눈이 부시게 현란했다.

생전에 가까웠던 친구 라흐마니노프는 스크리아빈이 음악을 통해 색채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다른 작곡가인 립스키코르사코프가 동조하는데 깜짝 놀랐다. 공감각에 회의적이었던 라흐마니노프의 기록에 의하면 두 작곡가의 반응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D장조를 황갈색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E플랫 장조를 스크리아빈은 붉은 보라색으로 보았고 립스키코르사코프는 푸른색이라고 했다.

1842년에 작곡가 리스트는 바이마르에서 한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면서 "제발 좀 더 푸르게, 이 음계에는 그것이 필요해요" 또 "이것은 진한 보라색이에요, 장미색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

의학의 발전과 함께 정신의학은 어디로 가나?

김 해 암(58, 대뉴욕)

뇌과학의 두드러진 발전과 인간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21세기 사회는 모든 면에서 전자화 되어가고 있고, 인간 지능의 역량을 넓혀 가야 하는 경지에 다다랐다. 그러면 의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하는 데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3부에 나누어 발표한 “현대 정신의학의 개요”에 대한 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응답하는 기회에 정신의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테마를 동시에 생각해 보자.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 세대에 말하든 ‘노이로제’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 (2) 조현병이라는 병은 어떻게 치료되며 새로운 요법이 생겼나요?
- (3) 판데믹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동안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지는데 해결책은?
- (4) 노인병에 대한 새로운 요법은 없나요?
- (5) 청소년과 마약의 습관을 어떻게 하지요?
- (6) 나는 약물 치료에 반대하는데 정신 치료를 가지고 정신병이 완치될 수 있는가요?
- (7) 새로운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요약 해보면서 일반 의사들이 또 가정의학 전문의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따라서 정신의학도들의 반응을 반영시켜 보려는 뜻으로 이 글을 읽어 주면 고맙겠다.

첫째, 정신의학은 과학이지만 정밀하고 기계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따라서 어떤 약을 쓰면 어느 특정한 병이 치료된다는 공식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다.

정신병 치료의 대상: 환자의 구별을 대체로 6 등분 할 수 있다.

- 1. 유아와 청소년들, 자폐증과 그 스펙트럼, 저능아들, (선천적, 후천적 포함), 유전적 신체 불구자 장신 합병증(실명, 청각 상실증, 모친 마약 중독 후유증, 등 포함)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정신병 (SMI, Serious Mental Illness)
- 3. 다양한 인격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포함)
- 4. 알코올과 약물중독 (신경자극제, 환각제, 대마초, 처방 진통제 약물 포함)
- 5. 충격 정신 후유증 (PTSD), 전쟁, 자연 및 인공 재난 후유증 포함
- 6. 노인병과 장기 감금에서 오는 후유증. 임상적으로 오피스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

위에 열거한 병들의 대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험과 비용이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치료 방법은 대부분 오피스 치료에서 거부 당한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이 공동으로 상담자와 치료 정책을 토의하고 모색해야 한다.

치료 방법:

치료에 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조건하에서, 어느 한계까지 치료를 진행한다는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

방법은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지만 동반 치료가 불가결하다. 상담, 상담치료, 장신 치료 및 정신분석을 들 수 있고, 가족치료, 집단치료, 합병 치료 방법을 위시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고안해서 시행하는 치료자의 특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독창적 치료 방법이 범람한 시대도 있었다. 약물치료의 경우도 누가 어떻게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린 경우가 많다.

투약하는 경우 환자의 면역성, 내성, 감내성, 앨러지, 등을 조사해야 하고, 제약회사의 명분과 지시를 잘 참작하여 개

성에 맞는 용량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수련과정과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임상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시될 때가 있다. 난치병인 경우 또는 부작용이 많고, 환자가 불협조적인 경우에는 임상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행하는 치료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우,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느냐, 강제 투약, 법적 수속을 거쳐서 주사 치료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판사의 지시가 내리면 대개 환자들이 투약 지시를 따르는 게 또한 묘한 인간 심리라 볼 수 있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장기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조현병(정신 분열증)의 경우, 망상이나 환청이나 환상이 심하지 않으면서 수년에서 수십년 또는 여생을 그런 증상에서 헤어나갈 수 없는 경우에 정신 치료, 학업 및 생업 카운슬링, 가족요법, 직업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조현병의 시작이 십대 중반에서, 20대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가장 기능적으로 활약해야 할 시절에 발병하면, 뒤처지거나 잃어버린 배움의 기회를 되찾기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 안정과 격려 그리고 서포트가 필요하다. 약물 치료로만은 초기 치료기를 놓치면,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 치료를 어떻게 배우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의학도 중에 정신의학을 전공하려는 의학도가 적기 때문에 환자의 수에 비해 정신과 의사의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의사수가 모자라서 긴 치료 시간과 장시일의 치료 과정을 요하는 장기 정신 치료의 수련을 원하는 의사가 적고, 동시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의사들이 쏠리게 된다.

장기 정신 치료는 어려운 심리치료이고 수련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의사의 성향과 취미와 맞고, 능숙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이런 치료는 장기 입원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병원 치료의 경우 한 주일에 2-3회 단면 비용도 많고, 시간 여유가 충분해야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수련의 문제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들이 대부분 은퇴하고 교육직을 떠났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교육가는 드물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정신치료사는 현재 심리학자 아니면 사회복지사 교육에서 정신 치료를 전공한 소셜 워크 치료가 담당하고 있다.

또 현시대는 시간의 절약과 스피드를 요구하는 세대라서 빨리 치료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할 일이 많다 보니 치료에 집중하지 못해 병이 치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고, 환자나 가족도 치료보다는 적당한 적응 상태로 유지해 가는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완치를 기대해 보려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망상이나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에 치료를 철저히 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데, 이런 과정을 발견해 내는 부모들이 많지 않다. 본인이 정신건강에 유의하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학교 과정으로 나타나는 날이 오는 것은 먼 미래의 사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의 인식의 레벨이 정신 건강에 점철하게 되려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난 후의 사회가 아닐까 이 저자는 생각한다. 통증에 대한 상식과 예방, 치료의 기술은 본인부터 배워야 하고, 가족이나 부모가 잘 통찰하여 적절한 치료 방

법과 인내성 훈련 등을 해야 한다.

판데믹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유전자를 찾아내는 게놈 탐지 기계의 조속한 발견과 생산에 이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세분학적 연구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극심한 압박증과 억압증에 뇌에 전치료를 시도하여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뇌 수술치료, 인슈린 쇼크 치료 등을 과거에 썼으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어도 고가의 보험료 때문에 불가능하며, 요즘에는 교과서에 있는 치료 약의 최대 분량을 투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임상적 기술에 의존하는 기종이 다시 등장한다고 봄이 옳다. 나도 그런 경험을 적지 않게 해오고 있다. 새로운 기법으로 심한 우울증, 공포증 또는 통증에 케타민이라는 일종의 마취제를 혈관에 서서히 주입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도 이용되는데, 대개는 실험용 치료에 그치는 이유가 보험이 받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심한 정신질환, 조현증, 양극성 우울증 등에 쓰는 자기촉매 치료는 뇌의 심부치료를 자기력으로 쇼크를 주면서 시행하는데, 뇌 전기 치료보다는

보험료가 적다고 한다. 여하간 심한 정신병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완치는 어렵지만 기능 회복은 개선되어 가고 있다.

결론으로 정신의학의 과학적 개념으로 파악한 학설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법이 생기려면 100년 안에 되리라는 희망은 적다. 인류가 그 이상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의학으로 완치를 바라는 정신병 치료는 드물다. 치료의 중점을 완치보다는 예방과 정신 건강 촉진하는 육아 방법을 사용하고, 가정생활에 도입하는 것인데, 그 요점은 환자 자신이 또는 그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단련하는 데 있다고 본다.

미국의 정신 의학 개요에 대한 추가와 업데이트

시계탑에 3부에 나누어 쓴 나의 글 ‘대정신 의학 개요’에 대한 문의와 비판을 해준 여러분과 근래의 현황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설이던 차에, 마침 미국 정신 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February 2022, vol 179, #2에 정신 치료에 대한 통계학적 역학조사 논문이 나와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다. 3 계간으로 나온 나의 글은 시계탑, 3-20-21, 7-20-21, 그리고 01-20-22에 나와 있는 글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의 추가는 주로 현재 정신병에 대한 치료 상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논의해 보려고 한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듀브로브닉

노 영 일(68, 시카고)

찬란한 태양, 푸른 바다, 잔잔한 물결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
듀브로브닉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높은 성곽 위를 오가는 파수꾼 병사들
아기자기한 거리에 오가는 달마시아의 선남선녀들
나도 아내와 함께 손잡고 이 거리를 거닐어 본다.

길가의 고색창연한 건물에서는
순진한 소녀들이 창밖으로 땅은 머리를 내밀고
외지의 손님들에게 손 흔들어 반기는 듯.

높은 종탑에 종이 울리던
삼삼오오 줄지어 교회로 향한다.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다는 오노프리오 수도꼭지
꽃보다 누나들이 즐겼다는 레몬 맥주
그 맛도 새롭다.

항구에 정박한 큰 돛단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모든 허식을 훌훌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즐기는
나체 해수욕장은 도리어 나를 당황케 한다.

케이블카로 산봉우리에 올라
내려다 본 마을은 또 하나의 그림이다.

오렌지색 지붕과 푸른 바다는
아기자기한 조화로 앙상블을 이룬다.

이곳이 지상의 낙원인가.



그림: 노영일(68) 동문

학계를 돌아보아도 주류 정신 의학의 방향은 마음의 병을 마음의 촉매로 고쳐 보려던 방법론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근 100년을 잡고 시도한 정신 치료에 대한 불신임이 그 주력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왜 정신 치료에 대한 신임도가 저하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드러진 이유의 하나는 자력으로 치유해 보려는 자유 의지의 발동과 많은 지침 서적, self-help books이 범람하며 IT 산업의 발달로 언론이 빨라지고 자유스러워진 데 있다고 보고, 또 일반인의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중세기에 성경 지식으로 마음의 치유를 맡아 하던 신부나 수도사의 역할이 사라지듯,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매력을 잃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정신 분석의 수련이 수년에서 십년 이상 걸리는 사실과 분석의 기법이 무의식의 발굴에서 의식적인 세계의 팽창과 지식의 다양성으로 학설의 범람과 정신력의 구심점을 찾기 어려워진 이유라고 보고 싶다.

정신의학도의 수련의 3-4년에 배울 수 있는 한계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 없지만 배워야 하는 내용과 범위는 수십 백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분석으로 시작하여 끊임없이 나오는 지식의 흡수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합하는 기능의 한계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전화기의 월 새 없는 소통 방과 구글의 검색의 필연성 때문에 (다음면에)

“Can I Try?”



이덕승(60, 남가주)

COVID-19 pandemic으로 집콕생활에 충실하던 아내와 나는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2년 만에 Doctor's Office를 찾았다. 우리 주치의는 board certified internal medicine 전문의로 자상하고 친절한 중국계 여의사로 알려져 있다. 오전 10시경에 오피스에 들어서니 이전과는 달리 대기실에는 기다리는 환자가 아무도 없다. 아마도 코로나 방역수칙에 의해 환자 수를 제한한 것으로 느꼈다. 간호조무사의 안내로 진찰실을 향해 걸어가는데 오른 편에 전에 보지 못하던 좁은 공간이 눈에 띄었다. 채혈에 필요한 기구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 설치한 간이 clinical laboratory 임을 직감했다. 그동안 아내와 나는 같은 진료실에서 번갈아 가며 그간의 병력에 대한 면담과 검진을 받으면서 진료를 마친 후에 별도로 phlebotomist가 고용된 Quest Diagnostics에 가서 blood sample을 채혈하곤 하였었는데 그러한 시설이 바로 이 오피스 안에 있으니 다른 장소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과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들었다.

모든 진료를 순조롭게 끝내자 주치의는 “You know, Dr. Lee, we have set up a new laboratory here. A lab technician will come and draw your blood. Thank you.” 하고 나갔다. 잠시 후 lab technician이 채혈에 필요한 기구들이 놓인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Hello, I am Ellen, How are you?”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갈색 머리의 여인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Who will do first?” 하고 아내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남달리 겁이 많은 아내를 나에게

고개를 돌리며 명령조로 말했다. “My husband.” ‘때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나는 왼팔의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엘렌에게 말했다.

“It's so hard to find my veins.”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양쪽 팔에 흐르고 있는 정맥혈은 매우 특이하기 때문이다. 해부학적으로 팔 속에 흐르고 있는 주요 정맥은 Median cubital vein과 Cephalic vein 그리고 Basilic vein 3종류인데 그중에서도 Median cubital vein이 가장 크고 굵으며 바늘로 찔러도 빗나가는 경향이 적고 또한 주위에 신경세포가 많지 않아 통증이 들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부위에 있어야 할 Median cubital vein 자체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다른 두 정맥 중 하나를 골라서 veinipuncture를 시도하게 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다. 숙련된 phlebotomist라 할지라도 단번에 성공하는 예가 드물다. 바늘이 혈관벽을 찌지 못하고 빗나가거나 조금만 힘을 주어 찌르게 되면 혈관이 터져서 부위가 퍼렇게 부풀어 오르게 된다.

나의 왼팔 부위에 tourniquet를 묶고 나서 Median cubital vein이 지나갈 만한 부위를 이리저리 만지고 눌러보면 엘렌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I can feel it.” ‘그럴 리가...’ 나는 내심 의아해하면서도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짜릿한 쾌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바람은 단 5초도 가기도 못했다. 세 번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자 이번에는 Cephalic vein과 Basilic vein에 도전했고 역시 실패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엘렌이 어느 정도 phlebotomy training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venipuncture 트레이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한 예를 들자면 veinipuncture에 주로 사용되는 butterfly needle로 skin 표면을 찌려고 할 때 각도를 40-45도로 skin surface를 뚫자마자 바늘의 각도를 10-15로 좁히면서 꾀째게 혈관벽을 찌르게 되는 것이 요령인데 엘렌은 초반부터 바늘의 각도를 50도 정도로 세운 자세에서 veinipuncture를 시도하고 있으니 될 리가

만무하다. skin 표면을 찌를 때의 순간적인 pain은 참을 수 있겠으나 찌르고 나서 혈관벽을 찾기 위해 바늘 끝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느끼는 pain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

당장이라도 tourniquet를 풀어헤치고 ‘stop it’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있는 엘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의 체면을 세워 주고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낮은 목소리로 “Why don't try you on my right arm?” 하고 오른팔을 내밀었다. 엘렌은 “I am sorry.”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세 번 더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당황해하면서 “I will call the doctor.” 하고 나가버렸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주치의와 엘렌이 동시에 들어왔다. 하지만 주치의의 technique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시술할 때 보니 미세한 손떨림이 있어서 바늘 끝이 혈관벽을 찌를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왼팔에 두 번 그리고 오른팔에 한 번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자 한다는 말이 “You are very dehydrated, it's hard to draw blood, so, let's try again after drinking some water.”였다. 아니, 나는 아침 식사도 했고 물도 충분히 마셨는데 탈수라니... 나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I'd rather go to the Quest and...,” 하려다가 무심코 “Can I try?” 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주위 답을 수 없다.” 고 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랬지? 혹시 실수라도 한다면 내가 내뱉은 말에 후회가 된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이 난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Oh, Yeah?” 주치의는 의아해하면서 잠시 나를 응시하면서 “Please”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기까지 했다. 아마도 주치의의 생각에는 채혈 실패에 대한 자책감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retired Anesthesiologist의 실력을 한번 믿어보자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모든 마취의들은 veinipuncture에 능숙하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practice가 한창일 때에는 하루에 3-5명 수술 환자에게 IV

infusion을 했고 때로는 입원환자 중에서 혹은 memergency room에서 IV infusion을 해야 하는데 정맥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마취의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나는 의료진에서 은퇴한지 22년이 되었다. 은퇴 후 한 번도 veinipuncture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아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직접 내 혈관을 찔러야 한다. 마음속이 조금 착잡하긴 했지만 20여 년 전에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

나는 소독한 후 엘렌에게, “Ellen, a needle please.”했다. 그런데 엘렌은 주치의가 마지막 사용했던 butterfly needle을 주는데 아닌가. 나는 엘렌을 쏘아 보면서 말했다. “No, new one!!” 엘렌이 황급히 건네주는 butterfly needle 양쪽 wing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잡아 올리고 바늘 끝부분을 내 몸쪽으로 180도 돌려서 Cephalic Vein을 찔러야 하는 몸의 자세를 취했다. 처음으로 해보는 동작이라 좀 불편했으나 바늘의 각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바늘이 vein wall을 뚫자마자 tube 속으로 붉은 피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며 나는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들어 주치의의 눈과 마주치자 주치의의 입가에 미소를 띠며 “Good for you! ... Excuse me, but there's a patient waiting. I have to go.” 하며 나가버렸다. 다음은 아내의 차례인데 여덟 번이나 veinipuncture에 실패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겁쟁이 인지라 아내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해 있었다. 아내의 vein condition은 양호한 편이어서 veinipuncture 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아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엘렌은 아내한테서도 같은 실수를 범했다. 나는 앉았던 의자에서 급히 일어서면서 엘렌에게 말했다. “Let me do it.” 그리고 아내의 혈액 샘플도 손쉽게 채취할 수 있었다. 오피스 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오른쪽 팔짱을 끼안으면서 속삭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 노병은 살아 있네요!”

<전면에서 계속> 현대 생활은 확실히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위에 말한 journal 기사에 의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996-2016년 사이 20년간 외래 환자 근 3만 명의 통원 치료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는 약 50%의 통원 환자가 정신 치료를 원했고, 또 받았지만 이런 추세는 점차로 줄어들어 2016년경에는 20% 내외로 줄었다. 주요 진단별로 보면 가장 현저한 저하는 공황 장애, 우울증, 인격 장애 환자들인데 대체로 1/2-1/4까지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세대에 진단받은 노이로제 환자의 대부분이 자의로나 타의(보험의 제외나 감소) 때문에 정신 치료를 못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현병(정신분열증)의 경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거나, 상승 기세를 보이는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정신과 수련의들의 반 이상이 전혀 정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왔다. 약물치료만을 하는 이유의 하나는 같은 시간 단위에 여러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두 배 세 배로 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환자 치료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합쳐서 하는 합동 치료법이라는 공식은 아직도 확실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백인이고 동부와 서부의 대도시에 살며 보험을 안 쓰거나, 자비로 보태는 환자들이다.

한국에서 치료 내력이 있는 환자들을 보면 약물 치료의 경우, 3-7가지 약을 소량으로 합체하여 사용하거나 분말로 만들어 포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한약 처방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좋은 것은 과잉 투약의 경우가 적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한국식 치료법으로 하면 미국에서도 한 정신과 의사가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욕의 파크 애비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부유층 지역에 사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받는 정신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능률적 방법을 지양하고 치료비의 다소를 망라한 치료 활동을 다수 환자 치료에 임해야 하는 치료 방법은 현 사회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욕구이다.

정신 분석이나 정신 치료 요법의 단점은 환자를 많이 치료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환자의 성숙도를 높여주는 과정을 위주로 하는 치료의 기간이 길고, 결과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고, 표준을 잡을 수 없는 등의 이유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의 요구에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신 치료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도움은 인간 사회에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든 존속하여 왔기 때문이다.

정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바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알려져 왔는데 과연 그런가? 그런 최선의 방법론은 무엇일까 하는 등의 연구는 앞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코비드 팬데믹에서 배운 바는 정신의 학에서도 치료 중심을 예방을 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발견과 집중적 치료방법도 효과적이지만, 정신력의 증진과 정신건강을 어려서부터 길러 줌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을 꾀하자는 것이

다. 이런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학교나 단체, 또는 기업체도 정신 질환을 예방하는 프로그램과 조직 체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결론으로 정신의학의 현황을 재검토해 보고 장래에 있어야 할 의료 봉사의 경향과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현대 사회가 문화

적으로 발전하고 가속화 되어가는 과정에 알맞은 정신력의 증진과 건강한 심신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의술은 인간의 생존성에도 관여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학의 전반적인 발전과 함께 정신의 학은 어디로 가고 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담 골목

내가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는 해에 deaths from Narcotic Addiction 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Gold Medal을 받았다. (노용면)

머리 좋은 죄수
외부의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는 교도소의 한 죄수가 아내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당신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텃밭에 감자를 심고 싶는데 일 할 사람이 없네요.” 편지 내용을 읽고난 죄수는 답장을 썼다. “여보, 우리 집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되요. 거기에 내가 총과 금괴를 묻어 놓았소.” 며칠 후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다. “여보, 큰 일 났어요. 수사관들이 여섯 명이나 들이닥쳐 우리 텃밭을 구석구석 파헤쳐 놓았어요.” 죄수는 즉시 답장을 써 보냈다. “그럼 됐소! 얼른 감자를 심어요.” (이덕승)

로또같은 남자
어느날 아내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내게 로또같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응, 하나도 맞는게 없어!” (이덕승)

노인과 보청기
80세로 보이는 두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엄청 비싼거야.” 다른 노인이 부러워하며 물었다. “그래 얼마인데?” 그러자 노인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대답했다. “12시.” (이덕승)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마누라가 갑자기 예뻐 보인다. <백내장> / 마누라를 보면 가슴이 된다. <부정맥> / 마누라와 걷는데 자주 뒤진다. <관절염> / 마누라가 시키는대로 한다. <치매> / 마누라와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병> / 마누라가 자주 천사처럼 느껴진다. <정신착란> (이덕승)

‘미라보 다리’의 회상(回想)

The Past is never dead. It's not even past. - William Faulkner

조 중 행 (69, 시카고)

50여 년의 의사 생활 중 마지막 6년을 모교의 분당병원에서 보내다 퇴직-은퇴하고 시카고 집으로 돌아온 지도 어언 1년이 넘었다. 일생을 새벽부터 수술장,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다, 그래도 70 줄을 넘긴 후 최근 몇 년은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좀 편안했을까?

돌이켜 보면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 말 야은(冶隱) 선생의 시조처럼 꿈같은 세월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은퇴는 했지만 요즈음 그놈의 코로나 사태로 여행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주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낮에는 내 방에서 나의 잡일을 혼자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집사람과 같이 영화나 한국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우디 알렌(Woody Allen)의 “파리의 자정(Midnight in Paris)”이란 영화를 보게 되었다. 우디 알렌 특유의 재치, 유머와 야유(sarcasm)가 섞여있고, 옛날 파리 여행 중 비싼 커피 호강을 한번 했던 전통의 카페 레 뒤 마고(Les Deux Magot)의 모습도 잠깐 나오고, 음악도 우리 귀에 익숙은 옛 노래 “Parlez-moi d'amour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Lucienne Boyer)”의 달콤한 멜로디가 잔잔히 깔리고 있어, 그날 밤 그 영화는 내 젊은 시절, 불란서 노래에 빠져 있었던 의예과 시절의 향수를 저리게 불러오고 있었다.



1960년대 문리대 정경

1. 동송동 의예과

“미라보 다리” 시절(1963-1964)

1963년 의예과에 입학하고 보니, 교과 과정은 고교 시절과 별다른 없이 짝 짜여 있었지만 수업은 자주 빼어 먹는 풍조가 만연했고 교수들도 의예과 학생들을 문리대의 ‘의붓자식’처럼 생각하는 듯했다. 첫째는 청량리 옛날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정에서, 2학년 둘째 해에는 동송동 문리대 교정에서 모든 강의와 동물학, 화학 실험들을 소화하였다. 문리대 남쪽(?) 어디에 있었던, 낡은 서양식 목조 건물의 환기도 잘 안되던 실험실에서 독가스 마셔가며 밤늦게까지 우리들을 감시하던 내 막내 누이의 동기 화학과 조교들 - 후에 아마도 유명 교수들이 되었으리라.

1963-64년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 계엄령, 위수령 등등으로 잦은 휴강, 시험 연기, 조기 방학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의과대학 건너편 대학로 문리대 쪽으로는 성북동-해화동에서 이화동을 거쳐 청계천 쪽으로 탁류가 흘러가는 한 3-4미터 폭의 개천이 있었는데 누군가 ‘세느강’이라 이름을 붙였고, 개천 위로 의과대학 정문을 마주 보며 문리대 교문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미라보 다리(Pont Mirabeau)’라 불렀다.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문헌을 좀 찾아보아도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할 자료는 없는 듯하고, 전후 세계를 강타한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 영화의 영향, 상송, 여기에 매료된 당시 문리대의 문학청년들(당시 사상계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던

김승옥, 이청준, 김현 등)의 영향, 또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의 연애시 ‘미라보 다리(Le Pont Mirabeau)’를 낭만적 노래로 불러 유행시킨 샹송 가수 이베티 지로(Yvette Giraud)나 줄리에트 그레코(Juliette Greco)의 60년대 성공적 방한 공연 등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해 볼 뿐이다.

나도 본과 올라가기 전 2년은 심리적 여유도 있었고 문리대나 법과대학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 오다 가다 얼굴을 마주치면 가끔 학림다방이나 낙산다방에 들러 서양 클래식 음악, 미국 팝 뮤직, 불란서 샹송 등등 -잡식 동물처럼 문화의 사대주의를 즐겼고 의예과 교과 과정에서는 독일어와 라틴어를 필수로 들어야 했기에 한 6개월 명동의 불란서 문화원(Alliance Francaise)에서 초급 불어 야간 강의를 들었다. 불문과 출신이었던 시인 김영랑의 아드님이 공군 대위 군복을 입고 초-중급 불어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코로나 사태가 정말 더 길어지면 ‘유튜브’ 선생님들로부터 불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볼까 한다.

경성제국대학시절 모 일본 교수가 심었다는 마로니에 나무 두세 그루 있던 문리대 교정에서 데모도 없고 좀 조용한 날에는 가끔 책이나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은 키의 ‘딸각발이’ 일석 이희승 교수나 농구 선수 출신 사회학과 이상백 교수, 국사학 이병도 교수 같은 원로 교수들의 얼굴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수학과나 화학과 동물학, 식물학과 등의 교수님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경외감, 성스러움(?) 같은 것을 이분들의 용자(容姿)에서 느낄 수 있었다.

1965년 봄 길 건너 의과대학에서 본과 생활을 시작- 졸업 후 연건동 병원에서의 레지던트 생활 등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후에는 미라보 다리로 세느강을 건너갈 일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70년대 나의 도미 후, 관악 캠퍼스 이전을 전후하여 우리의 세느강도, 청계천도 복개되어, 60년 대에 동송동 캠퍼스에서 청춘을 보낸 문리대, 법대, 의대, 미술대 등 우리 세대의 추억 세느강과 미라보 다리는 영원히 사라졌다.

요즈음 동송동 옛날 문리대 근처를 가 보면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 수 있다. 낙산 중턱까지 식당, 카페, 맥주홀, 크고 작은 극장(1,000여 군데 이상)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옛날 그 교정에는 마로니에 두 그루쯤 남아있지만, 산천(山川)도 의구(依舊)하지 않고 인걸(人傑)도 간 데 없다. 잡상인들이며 데이트하는 젊은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늘 시끄러운 우리의 고향에는 “낮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 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다” -김광규(독문과)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아! 세월은 잘 간다!

2. 파리의 미라보 다리(1999년)

돌이켜 보니 파리를 방문한 것이 횡수로는 적어도 서너 번 되는 듯하지만, 학회 참석이나 다른 유럽여행 시 경유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2-3일 짧은 시간만 머물게 되고, 특히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자유로운 과의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다.

20세기가 끝나가는 1999년, 나는 가까이 지내던 친구 Y군이 공직으로 파리 근무를 하고 있는 기회에, 당시 제네바

WHO 본부에 근무 중인 S군 포함 친구 두 명을 더 유혹하여, 그해 7월 가까이 지내던 옛 친구 네 부부 여덟 명이 조우(遭遇), 파리 바깥의 프랑스 전국을 도는 우리끼리의 ‘세기의 여행’을 기획하였다. 여행이 끝나고 나는 아내와 Y군의 관저에 추가로 며칠 더 머무르며(염치없이), 지하철을 이용 이전의 파리 여행에서 가보지 못했던 구석구석들을 찾아가 볼 수 있었다.

파리에 처음 올라온 삼총사의 촌뜨기 탈타냥이 결투할 장소로 골랐던 뤽상부르그(Jardin du Luxembourg) 공원도 걸어보고, 연인이었던 화가 마리 로랑상(Marie Laurencin)과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했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미라보 다리’도, 그의 무덤이 있는 빠흐 라셰스(Pere-Lachaise) 공원묘지도 아내와 찾아가 보기도 하였다.

거리를 걸어 다니다 한 고물상에서 장 콕토(Jean Cocteau)의 좀 엉성해 보이는 스케치 작품도 하나 충동구매를 하였는데, 그가 아편 중독에 걸렸을 때의 작품인지 요즈음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우리가 머물던 파리의 서쪽 16구(區) Y군의 관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미라보 다리는 조금 실망이었다. 주위의 경관도 다리의 구조도 평범한 동네의 다리였을 뿐 -단지 그의 시 ‘미라보 다리’의 한 구절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어서 요절한 시인 아폴리네르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물론 우리 젊었던 시절 구정물 흐르던 개천 ‘세느강’, 또 문리대 교문 앞의 동송동 그 미라보 다리보다는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30여 개의 세느강 다리 중 영화나 소설, 여행기 등으로 자주 소개되는 파리의 동쪽 변화가에 있고 구조도 더 정교한 조각으로 꾸며진 세느강의 다른 다리들 -야경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3세 다리(Pont Alexandre III), 폼네프 다리(Pont Neuf)나 젊은 연인들의 다리 폰데자르 다리(Pont des Arts)보다는 실망스러웠다.

서울에도 30여 개의 한강 다리가 있지만 수많은 자동차들의 쉬지 않는 통행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외에는 감히 걸어서 한강 다리를 건너가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서울에서의 일이 끝나고 작년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20세기 말 1999년에 파리 여행을 같이 했던 8명의 구우(舊友)들의 재회의 모임을 시도했으나 몸과 마음의 서글픈 변화로 두 명은 빠질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파리를 가본 지도 어언 20년- 요즈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리도 옛날 같지 않다고 한다. 이제 아내나 나의 나이도 70대 후반, 코비드 사태까지 생각해 보니, 파리에 다시 가 볼 기회가 올지 모르



이 원 택 (71, 남가주)

콩새

새벽녘 화초밭에 물 주러 나왔을 때 어디선가 날라 온 콩새 한 마리
내 코앞에서 왔다 갔다 알짱대는데 벌보다는 더 크다만
노래하는 피꼬리라 뭐라고 주절대는가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모처럼 너를 만나 짜지는구나」
“그럼 나를 한번 쫓아와 보려마”
수평으로 날아가는 너의 자태 가물거린다.
석양녘 과수원에 물 주러 나왔을 때 잊지 않고 찾아온 콩새 한 마리
내 얼굴을 뚫어져라 찌려보는데 나비보다는 더 세다만
하늘을 나는 솔개미라 날개를 퍼덕이는가
“너무 심심하지 않느냐?”고
「모처럼 너랑 같이 한바탕 놀아 보자」
“그럼 나를 한번 붙잡아 보려마”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사라져 버린다.
콩콩콩 콩알만 한 콩새야 너는 무서운 게 없구나
콩콩콩 콩알만 한 콩새야 너도 친구가 없나 보다
콩콩콩 콩알만한 콩새야 너는 늙지도 않겠구나



탱자

나무는 굴인데 열매는 아닌 것이 향기는 짙한데 피피죄한 꽃잎들 잘라도 잘라도 솟아나는 생명력
천덕꾸러기 그대 이름은 탱자이여라 그 과실 맛은 쓰고 떨어진다
예리한 가시는 딸감도 안 되지만 우리 집 햇병아리 지켜주는 울타리 되니 맵고 독한 그대 이름은 마나님이여라

겠다. 혹시라도 그럴 기회가 온다면 오늘 밤 본 영화에서처럼, 자정을 알리는 시계탑의 종소리가 울릴 때 낡은 푸조(Peugeot) 자동차를 타고 우리의 좋은 시절(The Belle Epoque)로 돌아가 상제르멘(St. Germain des pres)에 있는 카페 레 뒤마고에 들려, 자주 출몰하던 기욤 아폴리네르나 의사 시인 앙드레 브레통(Andre Breton) 혹은 작년에 90여세의 나이로 돌아간 ‘줄리에트 그레코’라도 만나 커피라도 한잔하고 올 수 있겠다는 고노(古老)의 겨울 꿈을 꾸어 본다.

“파리 바게뜨”에서 만들어 역 수출된, 내 손녀가 좋아하는 한국식 마카롱(Macaron) 과자를 이들에게 대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 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흘러내린다.

내 마음 깊이 아로새기리 기쁨은 늘 고통 뒤에 온다는 것을.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남는다.



서까래, 수탉, 그리고 나와 당신

서 랑(69, 대뉴욕)

불경스러운 말들

'F--k you!'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심심치 않게 듣는 영어다. 이 표현이 험악한 욕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20년 경, 일차세계대전이 끝난 즈음이었다.

'F--k me!'는 'x해 줘!' 하는 매우 저속한 말로서 대개는 여자가 남자에게 한다. 이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발언을 'Rated R' 영화에서 깜짝 놀라며 들은 적이 몇 번 있다. 한마디로 양키들의 의사표시는 대담하다. 'F--k you'가 남녀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에 부드러운 억양으로 쓰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 쳐!'라는 뜻이 된다. 쌍소리에 과민한 당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뒤의 문맥을 연구해 불만한 화법이다.

'motherf--ker'는 우리나라의 욕이오 사변이 발발한 1950년도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유행시킨 속어다. 우리말로 '지미 x할 놈' 혹은 '니미 x할 놈'이라는 뜻으로, 심한 욕이지만 사실 'son of a bitch' 보다는 부드러운 뉘앙스를 풍긴다. 이 말은 또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인다.

'지미'는 '지 에미', 그리고 '니미'는 '니 에미'의 줄임말. '니기미 x할'의 '니기미'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우리 뼈저린 삼남(三南) 사투리다. '느그 에미'를 빨리 발음하면서 모음을 '이'로 통일하면 바로 그 소리가 난다.

현재진행형 'ing'가 붙여진 'f--king'이나 'motherf--king'은 요사이 문법책에서 'intensifier(강조어)'라 불리고 있다. '강조어'란 문자 그대로 화자가 자기 말이 강력하게 들리도록 하는 수법이다. 그래서 어떤 소탈한 성격의 당신 양키 친구가 'Gee, it's f--king beautiful out there today!' 했다면, 그 말은 '아이구, 오늘 밖에 날씨가 우라지게 좋네!' 하는 뜻으로 얼른 알아차려야 한다.

기원전 49년,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는 지금 이태리 북부에 위치한 루비콘(Rubicon)강을 횡단하여 로마를 정복하기 하루 전에 자기 어머니를 강간하는 꿈을 꾸고 대경실색을 하면서 예언자를 찾아가 해몽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예언자는 그것이 '꿈을 정복하는' 꿈이라며 머지않아 시저가 로마를 통치하게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 줄리어스 시저의 사연 때문에 'cross the Rubicon'이라는 관용어는 대학 졸업자 정도로 언어에 민감한 양키들이 다 아는 속어로서 '단호한 행동을 취하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됐다.

이씨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어느 날 서까래 셋을 짊어지는 꿈을 꾸 후 무학대사(無學大師)를 찾아 갔더니 '그것은 임금 왕(王)자를 뜻하노니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징조입니다'라는 싱거운 해몽을 받았다는 고사를 당신은 아마 기억할 것이다. 딱딱한 세 개의 목재(木材)가 등을 압박하는 이성계의 꿈에 비하면, 어머니를 소스라치게 강간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꿈이야말로 실로 숨 막히는 대조를 이루는, 양키적인, 너무나 양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시저의 대퇴근은 섹스에 강했고 이성계 등뼈는 서까래에 강했다.

서구의 의식구조는 성적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었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온 가족이 오순도순 함께 모여 사는 집의 서까래를 중시했던 것이다. 모권제도의 압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흑인이나 우리들 간에 'motherf--ker'나 '지기미 x할 놈'이라는 욕이 생겨난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가. 상대

에게 욕을 할 때 상대의 어머니를 들먹인다는 점에서 당신이나 나나 흑인들과 비슷한 기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x 같거나 x만 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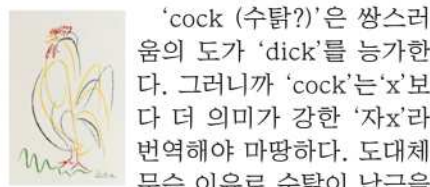
뉴욕 맨해튼 구치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4년 전 그곳에 유치됐던 한 죄수가 당시 복용한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지속발기증'을 일으켰다. 그런데 6일 동안 심한 음경의 통증을 진통제 타이레놀로만 치료한 결과로써 그는 성기능 불구자가 됐다는 사연이다.

성적인 흥분이나 자극 없이 네 시간 이상 음경발기가 아프게 지속되면 일단 병원 응급실에 가서 외과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억울하게 음경을 절단 당한 그 죄수는 뉴욕 시를 고소해서 2015년 7월 6일, 75만불의 배상금을 받도록 판결을 받았다. 그는 데일리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 "If I had the choice between the reward and having my manhood restored, I'd have my manhood restored in a heartbeat." (만약 보상금이나 남근을 회복하느냐 하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남근의 회복을 택했을 겁니다.)

'manhood'는 음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 우리말의 '남근'만큼 점잖은 문어(文語)이기 때문에 구어체 위주의 일상 용어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다. 미국인들은 음경을 흔히 'dick', 더 심하게는 'cock'이라 부른다. 같은 뜻으로 'pecker(꼭쟁이?)'나 'prick(찌르기?)'도 스스럼없는 발상의 결과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말로 'x'이라 하는 'dick'은 'Richard'의 애칭 'Rick'가 'Dick'로 변했다가 나중에 일반명사가 된 말. 'Richard'는 고대불어와 중세영어에서 '지배자'라는 뜻이었다. 좀 거시기하겠지만 남녀의 섹스 장면을 연상하면 이 또한 그럴듯한 발상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cock (수탉?)'은 쌍소리의 도가 'dick'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cock'은 'x'보다 더 의미가 강한 '자x'라 번역해야 마땅하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수탉이 남근을 상징하게 됐을까? 일설에 의하면 수탉의 머리가 수도꼭지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보다 좀더 역동적인 광경을 떠올리면 당신이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즉, 수탉이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상태에서 목 앞에 늘어진 벚이 빨갛게 부풀어오르는 것이 음경이 발기할 때의 모양새와 분위기가 매우 비슷한 데서 온 것으로 어원학자들은 풀이한다.

이런 연유로 해서 중세기부터 예찬을 받아오던 서구적인 수탉은 엄격한 도덕성을 국책으로 삼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인 19세기 중반에 금기어(禁忌語) 취급을 당했다. 일찍이 미국에서도 청교도들의 고운말쓰기 운동에 준하여 정부가 외설스러운 'cock'을 금지하고 그 대신 'rooster'를 쓰게 했다. 그러나 갑남을 녀의 정서가 그렇게 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x 같다'는 쌍소리를 들으면서 당신은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린다. 곳은 날씨가 대신 x 같은 날씨라 하지 않나, 사람이 못됐거나 변변치 않을 때도 x같은 놈이라 하는 우리말 습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가 하면 물건이나 사람이 작을 때도 'x만하다'라 하는 수상한 표현은 또 어떤가.

'x 같다'는 표현은 남근이 발기한 상태의 흥취한 모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고

로 큰 것은 호감의 대상의 되지 못하는 법. 그래서 크다는 의미의 'gross'는 슬랭으로 징그럽고 역겹다는 뜻이다. 반대로 'x만하다'는 속어는 남근이 발기하기 이전의 왜소한 모습, 혹은 섹스가 끝난 후 지배자(Richard)의 사나운 영광이 사라지고 없는 적막감을 반영한다. 어떤가? 'dick'에 비하여 'x'이 좀 측은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너, 당신, 그리고 여보

미국에서 나만큼 오래 살은 대학동기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이라 하지 않고 '내 집'이라 말하고서 둘 다 놀란다. 한국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내 와이프 (my wife), 내 나라 (my country) 대신에 우리 와이프, 우리 나라라고 해야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 느낌이다. 내 나라? 내가 전 대한민국을 소유하다니. 오, 마이 갓! 할 때도 굳이 소유격을 넣어 번역해서 '오, 내 신이여!' 하기가 조심스럽다. 자칫 신이 내 전유물처럼 들리면 어쩌나 싫어서다.

이것은 '나'를 감추고 '우리' 뒤에 숨으려는 심리작용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더니 미약한 개인의 능력에 반하여 당(黨)은 참으로 막강한 힘을 갖는 법이려니와 우리에게 생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1인칭 단수와 복수를 바꿔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와이프'는 좀 심한 걸.

현대영어에서는 2인칭 단수와 복수가 같다. '너'도 '너희들'도 다 'you'다.

그러나 원래 고대영어는 2인칭 단수와 복수를 뚜렷이 구분했다. 너라는 2인칭 단수를 'thou'라 했고 너희들이라는 뜻으로는 'ye'를 따로 썼다. 찬송가 '참 반가운 신도여', 'O Come, All Ye Faithful'에도 고풍스러운 2인칭 복수 'ye'가 아직 남아있다. 'you'의 위세 때문에 'ye'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thou'만 'you'의 높임말, 혹은 종교적이거나 시적인 말로 명분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다수의 힘을 빌려 생존을 꾸려나가는 동안 서구인들은 내가 맞이하는 2인칭 중에서 단 한 사람인 '너'에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나와 너의 지상주의를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결국 '너희들'이라는 집단을 등한시하게 됐다는 것이 내 정신분석학적 소견이다.

미국 남부에서는 'you'는 단수, 그리고 'you all'은 복수를 뜻한다. 우리말로 '여러분'이다. '어린이 여러분' 혹은 '국민 여러분' 같은 말로 당신 귀에 익숙한 표현이지만 딱히 유치원 선생님이나 정치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들 또한 2인칭 복수에 별로 익숙하지 못한 형편이다.

1대1로 축약된 인간관계를 생각한다. 워낙 정신과 의사를 소망했다가 20세기의 종교학,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에 큰 공헌을 남긴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의 '나와 너(I and Thou)'를 생각한다. 그는 문명사회에 있어서 '나와 그것 (I and It)'이라는 사고방식이 상대방을 이기적 차원에서 도구와 방편으로 취급하는 병폐를 지적하면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받아드리는 절차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한 실존주의 철학자다.

'나와 너'라는 번역이 불손하게 들려서 'I and Thou'를 '나와 당신'이라 옮기니까 좀 로맨틱해진다. '나와 자기' 그건 아무래도 무리라니까.

'나와 여보'도 말이 안 된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여보는 갈을 여(如)와 보배(寶)가 합쳐진 한자어로서 보배처럼 귀중한 사람을 뜻한다고 우기는 글을 읽었다.

여보의 어원을 설명하기 위해 국어학자 홍윤표는 춘향전 중에서 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여보, 사또 들으시오" 하는 대목을 인용한다. 변사또가 춘향에게 보배처럼 귀중한 사람이었다고? 으하하!

누가 뭐래도 여보는 여기를 보라는 말의 축약형으로서 상대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한 호칭이다. 남부 영어에서도 'Look here!'를 줄여 'Lookie!'라 하는데 촌티가 뚝뚝 떨어지지만 한참 정겨운 슬랭이다.

동서양 인칭대명사의 변천이 매양 이렇다. 여기를 보라는 말이 어찌 이토록 에로틱하게 들리는가 말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詩 | 짧게 말하기

아침이면 아침마다 생선 *아지 사러~ 하는 생선장사 구성진 목소리가 담장 밖에서 울리는 곳. 서울 성북구 수유리 수유동에 살면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장군의 수염을 읽었다. 수유리 장미원 근처에 보건탕이라는 대중탕이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4.19 기념탑이 있었다. 당신과 나와 이어령의 별거벗은 청춘이었다.

새파랗게 젊으신 어머니는 째짤한 아지 조림을 자주 하셨다. 신성일이 내 動物腦의 영웅이었고 이어령이 내 人間腦의 지도교수 역할을 맡은 격이다. 내 뇌리에서 생선 아지 비린내가 풀풀 났다.

2002년 4월 어느 날 맨해튼에서 이어령 선생이 제한된 숫자의 관객들에게 무슨 담론을 펼쳤다. 연제가 무엇이었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좀 잘난 척하고 싶었지. 정신과에서 말하는 transitional space, 과도기 공간에 대하여 질문을 올렸다. 이어령 선생은 "짧게 말하겠습니다" 하며 시작하시더니 오래동안 쉬지 않고 청산유수격으로 째짤, 또 째짤 말씀 하셨다.

당신과 내가 험난한 과도기를 거친다. 가끔은 재미도 있다. 짧은 꿈처럼. 과도기 기억 보관소에 영원히 남을 영혼들. 소수의 멋진 영웅들과 이어령 같은 人間腦 지도교수 몇몇이 내 우글쭈글한 대뇌를 질게 채색한다. 지금은 생선 아지도 이어령도 없다. 아, 나도 당신에게 교수 티를 내면서 짧게 말해주고 싶다. 심금에 맺힌 말이라 하면 할 수록 끊임없이 탄생하고 부활하는 말들을.

*바닷물고기 '매가리'나 '전갱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시작 노트: 사람의 뇌를 동물뇌와 인간뇌로 구분하는 버릇이 생겼다. 어떤 때는 당신이 동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둘 다 잘 합쳐진 혼혈체라는 말은 이분법 사고방식의 노예인 나로서는 너무 어려운 추상이다. 이어령 석학이 2022년 2월 26일에 사망하시고 난 후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2002년 4월에 맨해튼에서 그를 만나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남는 건 사진 뿐이라는 말인가. 아니다. 영혼의 전율 같은 것이 남아있다. 그는 옛날 내 인간뇌의 수장이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60년 4월 19일까지**

서윤석(68, 버지니아)

1장 그때 나는 영등포 국민(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7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수난이고 비극인 한없이 슬픈 이야기가 된다. 강대국의 힘으로 일제에서 비록 해방되었지만 사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미 남북으로 갈리어 싸우고 있었다. 스탈린은 북한에 공산당 김일성 정권을 세우고 남쪽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것이 1948년이었다. 두 정부로 갈라져 결국 38선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해방 후 1-2년 사이에 6백만 명이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남하했다. 공산주의를 따르던 소수 사람들도 지하활동이 어려워져 북쪽으로 넘어갔다. 인연과 혈연보다도 사상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겪어야 했고 앞으로 더 당할지도 모르는 불행을 후세 역사가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의 아버지는 북한 정권이 들어서자 해방되던 해에 사업체를 다 빼앗기고 공산당이 모르게 함경남도 군선을 탈출했다. 그때 이미 우리 가족은 어머니 고향인 경기도 개성에서 1948년까지 살았다. 형제들이 모두 38선이 지나가는 송악산 남쪽에 있는 만월동에서 태어났고 형들은 개성중학교, 개성상고를 다녔다. 나도 아직 학교를 갈 나이는 아니지만 6살까지 개성에서 자랐다. 그때의 기억이 내 일생의 첫 기억이 된다. 만월대에 올라가서 놓고 동네 아이들과 같이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그리고 병정놀이를 했다. 그때 아이들은 왜 패를 갈라서 싸우는 놀이를 했을까? 서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때 이미 송악산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아이들도 그대로 흉내를 낸 셈이다. 하루는 우리 집 앞으로 균용트럭이 피를 흘리며 부상을 당한 아저씨를 태우고 요란스럽게 남쪽으로 달리던 것을 보았다. 어린 나에게 그것을 무섭게 느꼈다. 아마도 전세가 불리했던지 날이어나 보다. 군인 대장 아저씨가 망원경으로 멀리 송악산 위를 조사하는 장면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만월동 일대가 전투 지역에 가까웠던 곳이었다.

고려의 수도 개성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다. 주민들이 단결이 잘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주로 북쪽에 살았다.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도시이다. 개성 객쟁이라고 놀려대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개성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계산이 정확하다. 남의 신세를 지면 꼭 갚는다. 모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이웃들이 산다. 서울에 갈 때는 서울 내려간다고 한다. 미국의 보스턴 사람처럼 프라이드를 간직한 도시다. 보쌈김치, 신선편, 식혜, 강정, 그리고 유명한 인삼, 겨울이면 화롯불에 올려놓고 보글보글 끓여서 먹는 호박김치가 일미이다. 여인들은 물자를 아끼고 쓰던 양말을 손질해서 쓰고 살림을 잘한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개성 음식을 어디서 다시 맛볼 수 있으랴. 만월동 우리 집에는 뒷마당에 복숭아나무가 있었다. 자상한 큰 형과 같이 탐스러운 스킬도에 종이 봉지를 매달아주던 일, 귀가 큰 하얀 토끼를 기르던 일, 풀을 주면 오물오물 씹어먹던 빨간 눈을 굴리던 토끼가 있었다. 만월대로 철없이 같이 올라가 뛰어놀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외갓집으로 가던 길에는 내 키보다 높은 꽃밭이 있었다. 코스모스 꽃이었을까? 큰 형과 같이 그 길을 가면서 입술을 내밀고 휘파람을 어떻게 부는지 처음 배우

던 일, 집에 와서도 자주 불러보다가 뺨이 나온다고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던 일. 그렇지 아버지는 나에게만 늘 엄하였다. 그 어린 나에게 천자문을 달달 외우게 하셨다. 하늘 천 따지地부터 이끼언 이끼야도 끝까지 암송하라고 명령하셨다. 어떤 날은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 나는 슬슬 도망갔다. 그 암송 검사 때 문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서울에서 오시면 기차에서 사신 강생 캐라멜을 한 갑씩 나누어 주셨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처마에서 똑똑 대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던 그런 때를 기억한다. 저녁이면 멀리 북동쪽에 보이던 인삼밭 건물에서 반짝이던 불빛이 떠오른다. 또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하는 음조가 따라 울리고 나를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하고 애달르게 만든다. 만월동 290번지, 그때 이곳에 살던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갔을까?

2장 1948년 개성을 떠나서 우리 가족은 영등포구 당산동 효모주식회사의 사택에서 살았다. 6.25사변이 터져서 민족의 비극이 시작하던 그날 우리는 한강 남쪽에 있었다. 형들과 누나, 동생, 그리고 심부름을 하던 봉순이 누나를 합하면 열명이 살았다. 나는 일곱 살 반, 영등포 국민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며칠간 모두들 학교를 가지 않았다. 공산당을 피해서 남하한 아버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주저 없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섰다. 곧 사태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피난 보따리를 싸다. 두 패로 나뉘어서 나는 큰형과 누나와 함께 서쪽 당산동 쪽을 따라 걸었다. 안양 양조장에서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다. 누나는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나와 형은 짊어지고 걸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언덕 서쪽 편에 국방군 백여 명이 두 그룹으로 엮드려서 총을 겨누고 전투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부족한 장비로 적군을 맞아서 싸우려는 그들이었다. 이때 갑자기 우리 머리 위로 소련제 잠자리 정찰비행기가 나타났다. 비행기는 우리 주변을 빙빙 돌았다. 간이 콩알만 해진 우리는 군인들의 반대편 언덕에 엮드렸다. 형은 내 머리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았다. 총알이 날라와도 머리를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비행기가 부우부우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에선가 팡팡 팡팡하며 총소리가 들렸다. 빠른 속도의 고음이었다. 군인들이 비행기를 향하여 쏜 것인지 비행기에서 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총소리는 내가 처음 들어본 잊혀지 않는 공포의 소리였다. 비행기는 잠시 후 사라졌다.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곳이 최전방의 전쟁터였고 그곳을 우리는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가 뚝을 따라 2백 미터 내려왔을 때 오른쪽 쪽 아래를 보니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었다. 그들은 다 푸른 옷을 입었고 총에 맞은 것이 분명했다. 혹시 이날 아침 간수들이 떠난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탈출했던 죄수들이었을까?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 국방군일까? 아니면 비행기가 쏘고 갔을까? 나는 이때 처음 죽은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어린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다. 아! 6.25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싸움터에서 전투에서 죽고 다치는 사람, 그 외에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됐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평생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생이별의 비극을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다 알 수 있으랴. 전쟁은 모두에게 불신

과 적대감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고 있다. 이런 전쟁의 슬픔이 이날 시작되는 것이었다. 힘들고 처참한 우리 민족의 고난의 행군이 이날 시작되는 것이었다.

3장 안양에서 무사히 합류한 우리 가족은 국도를 건다가 그날 늦게 수원역에 도착했다. 들리는 전쟁 소문은 비관적이었다.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고 기차도 화물칸을 다 연결해서 남쪽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피난민들은 그런 기차의 빈자리로 올라탔다. 뚜껑도 없는 화물칸이 대부분이었다. 석탄이 타는 연기와 냄새를 그리고 간혹 높은 기적소리를 내면서 남쪽으로, 서정리 천안 방향으로 달렸다. 또 천천히 달리다 정지하고 또 얼마간 쉬다가 또 떠났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밥을 팔아서 팔기도 했다. 천안을 지나 기차가 한동안 멈췄을 때 나는 소변이 마려워서 내렸는데 갑자기 기차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나는 오줌을 누다 말고 달렸다. 속도가 붙은 기차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었다. 이때 어떤 아저씨가 나를 잡아 올려주어서 다시 탈 수 있었다. 하마터면 고아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기차가 충남 조치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은 내렸다. 아버지의 보성전문학교 때 친구인 김명동 제헌 국회의원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니 그분 자신도 남쪽으로 그날 피난을 한다면서 그의 사돈인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 사기정골로 가서 성구용 댁을 찾아가라고 소개 편지를 써주었다. 이분은 사육신 성삼문의 후손이고 우리나라 성리학의 대가 진박의 후계자로 알려진 분이였다. 허리가 굽은 일꾼을 두고 작은 농토를 소유하고 옛날 서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17-8세가 된 4대독자는 신식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한학을 공부한 총각이라고 머리에 땃기를 틀고 있었다. 그분은 소개 편지 한 장을 믿고 방을 나누어 쓰고 곡간의 많지 않은 곡식을 우리 아홉 식구와 나누어 먹었다. 진정한 성리학자의 모습이다. 조상의 산소에 예를 늘 차리고 공자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시하는 유학자가 바로 이런 분이였다. 전세는 기울어져가고 암담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한 달 이상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아침이면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에 세수를 하고 모래로 이를 닦았다. 그해 여름에는 왜 그렇게 매미가 요란하게 울었던지 모르겠다. 뒷산에서 길을 잃은 미군들이 달라 지폐를 흔들면서 '대구'하면서 남쪽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아직 익지도 않은 호박과 감을 따먹으면서 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작은 산골로 이상한 총을 든 군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군기가 잘 잡힌 유니폼도 단정한 군인이었다. 사람들은 국방군이길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남진하는 인민군들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밥을 지어내라고 하고 초가집 문짝들을 떼어갔다. 코앞에 있는 금강 줄기를 건너가려는데 필요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다음 새벽에 도강에 성공하고 나중에 대전 근처에서 산속에서 길을 잃은 24단장 단소장을 포로로 잡아갔다. 전쟁 소문은 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주군 인민위원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뒤졌다. 특히 이북 사투리를 쓰는 우리 아버지가 대상이 되어 호출됐다. 군청에서 취재 도중에 보성전문학교 시절 반일 남조선 강연 경력(1926년 동아일보 기사)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흥원이 고향인 천재 소설가 강용훈, 극작가 서항석, 철학교수 김계숙, 화가 도상봉, 또 사업가 서준호 님들처럼 아버지

의 함경도 사투리가 특이했다. 농담으로 함흥 알개, 흥원 참새라는 별명이 있다. 해방 후 38선을 넘어 남으로 탈출한 아버지이다. 그들이 수상하게 생각한 것이 분명하지만 동행한 인망이 높은 성구용 선생의 보증으로 이날 잠시 풀려나 오셨을 뿐이다. 다시 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곳을 떠나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다시 보따리를 챙겨서 여자들은 머리 위에 이고 우리는 영등포 집으로 걸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장마철 팔월의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가 계속됐다. 비는 다행히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잔인한 태양열이 우리를 괴롭혔다.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목이 탔다. 길가에서 붉은 완장을 두른 요원들이 우리를 검색했다. 의용군을 모집하는 중인지 두 형을 문초했다. 다행히 우리가 북쪽으로 가는 일행이고 형들이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보내주었다.

하늘로 오는 유엔군 비행기 소리는 더욱 빈번해지고 밤이면 불을 켜지 못했다.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면 길 양쪽 옆으로 흩어져서 었드렸다. 무서운 소리를 내는 무스탕(Mustang)이 폭격을 잘했고 색색이 호주 제트기는 주로 높은 하늘로 빨리 지나갔다. 목이 마르면 마을로 들어가서 샘물에 목을 축이고 밤이면 인가에 들어가서 끼니를 끓여먹고 쉬었다. 길가의 호박과 풋고추는 따가는 사람이 임자였다. 전쟁 중에는 모두가 작은 도둑이 되는 셈이다. 옳지는 않지만 그랬다. 인간이 변하고 생존하기 <다음면에 계속>

그리운 친구 윤말레...

홍정임(Mrs. 박호현 58)

낮익은 그이를
마지막 불러보는
이름이 될 줄이야!

왜 그리도 급히 떠나야만
했는지요!

마음속에 담아온
다시 만날 날을
기리는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모른 채...
잘 가라는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었는데...
그렇게 영원히 떠나 버리시다니요!

우리는 지난 40여 년을
같은 고향 Philadelphia에 살면서
한때는 젊은 시절을 함께 즐겼고
또 같이 늙어 가면서
서로 변해가는 모습 지켜보며
정도 깊어 갔었지요.

요즈음 멀리 떠나 살게 되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 문자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안 계신 이 세상 한없이 허전하군요!

오랫동안 병고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Dr. Lee의 지극하신 정성과 사랑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병마
다 떨치시고 평화로운 천국에서
편히 쉬시기를 빌면서...
친구여 안녕히!

고 윤말레(Mrs.이만택)를 마지막 보내며

머리 박치기 (HEAD-BUTT) 한자의 죄와 벌

이희백(61, 시애틀)

2006년 월드컵 결승전 당시 불란서 팀 주장인 지네딘 지단이 이탈리아 팀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지단은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으며 연장전에서도 2대2 동점으로 끝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가르게 돼 결국 프랑스가 4대5로 패배했다.

지단은 사과를 했지만 후회는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후 마테라치가 인터뷰에서 이유가 밝혀졌다. 마테라치가 경기 중 세 번이나 부딪혔고 지단은 "경기가 끝난 뒤 내 옷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나 마테라치가 "네 옷 보다 네 여동생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단은 알제리아 독립전쟁 전에 불란서로 온 부모에서 태어났다. 자기 어머니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가 이런 인종차별로 인해 그의 성격이 다소 과격해진 게 아닌가 싶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머리로 우크라이나 가슴을 들이 받는 격이다. 지단과 같이 러시아도 아무 이유 없이 들어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들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도 이라크가 장차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라크, 그리고 나토에 가입한 우크라이나, 누가 더 위협적인가. 그리고 미국

의 이라크 침공 때에는 왜 다들 잠자고 있었을까. 가만히 있기는커녕 영국 토니 블레어는 미국의 침공을 도와주지 않았던가? 이라크 침공 때문에 생긴 중동 피난민을 적극 막으려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은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저런 이유로 러시아로서는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단이 마테라치에게 당한 모욕은 고려되지 않고 레드카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유엔에 의해 14대 5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국가 간의 분쟁은 축구장의 분쟁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잡하다. 누가 먼저 잘못을 시작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가려내기 힘들다. 어느 시점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도 판단하기 힘들다.

한국전쟁의 시작도 6.25가 아니라 8.15라는 사람도 있다. 시카고대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서 한국전쟁의 원인을 이조시대까지 올라가 지주, 소작농까지 다루고 있다.

세상에 완전한 정의란 없다. 완전한 정의를 구하려 하다간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레드카드가 부당하다고 퇴장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경기는 끝이 날 수 없다.

야구 경기에는 1루수 심판이 오판하는 바람에 투수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록인 '퍼펙트'게임이 사라진 적이 있다. 심판 자신이 오판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법칙상 반복할 수 없었다. 아무리 억울하다 치더라도 레드카드를 받았으면 나가야 한다.

러시아도 레드카드를 받았으니 우크라이나에서 퇴장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전면에서 계속> 위하여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거의 열흘을 걸어서 우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버지 친구 댁에 도착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항일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 사상적으로 친구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방을 내주었다. 다음날 부모님과 일부 가족들은 영등포로 떠나도 두 형과 나는 그 집에 남았다. 나는 여덟 살이었지만 잘 견디었다. 그러나 손톱도 길고 머리도 깎지를 못해서 거지 같은 꼴이었다. 그래도 형들은 생활력이 있어서 이때 쌀장사를 했다. 그래서 방에 쌀이 한 포대가 늘 있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나는 그때 생각이 나서 쌀부터 여러 백을 샀다. 쌀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 수 있다. 산에 올라가서 밤도 흔들여 까먹고 아침이면 남의 밭에 가서 훑고추도 허락도 없이 따먹고 남의 콩밭에서 형들과 같이 콩을 캐서 구워 먹었다. 그러다가 동네 어른들한테 야단도 맞았다. 밤에 불빛이 있으면 폭격기가 오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인심이 한창 나빠지더니 어찌 된 이유인지 추석이 다가올 무렵부터 다시 너그러워졌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유엔군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실제로 국도를 따라서 미제 2사단 탱크부대가 북진하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태극기와 유엔기를 흔들면서 그들을 맞이했다. 먼지를 뒤집어쓴 눈이 파란 미군 병사들을 나는 이때 처음 자세하게 보았다. 껌을 씹고 초코릿을 던져주고 형은 작은 커피와 설탕 봉지를 받았는데 하나를 나에게 줬다. 그런데 입에 넣어보니 그것은 쓰디쓴 커피가루였다. 형은 설탕을 맛있게 먹으면서 나를 보고 웃었다. 국도를 따라 젊은이 한 사람이 깃발을 흔들면서 북으로 가다가 잡혔다. 그를 포로로 잡아서 미군들은 지프차 앞에 태우고 가면서 포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

았다. 어린 나는 그것을 보고 미군들은 참 신사라고 생각했다. 미군이 들어온 후 이웃에 추석이라고 찾아가니 고깃국에 송편 등 잔치 음식을 내놓고 환대하는 것이었다. 특히 고아로 생각했는지 나를 불쌍히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이 다시 탈환이 되었고 우리도 영등포 집으로 되돌아왔다. 온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이다.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4장 영등포 당산동 사태의 뜰에는 풀이 온통 한길에 넘게 자랐다. 황폐한 뜰 가운데 깊이가 어른 두 길 반쯤 되는 공장 하수구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이 바로 내가 놀다가 빠져서 내 이마가 찢어졌던 바로 그곳이다. 국민학교 일학년 때였다.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나를 기술사 아저씨가 우물 속에서 건져서 병원으로 업고 갔다. 당시는 소아마비 예방 주사도 없었던 때이지만 다행히 미군부대를 통하여 페니실린이 나온 때였고 마침 좋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 근처에 있었다. 그는 상처를 잘 소독을 하고 열대 바늘 꿰매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칭찬도 해주어서 좋았다. 그 이마의 상처가 70년 후에도 아직 크게 남아있지만 머리털에 가려서 안보인다. 대머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그때 나를 치료해 주던 그 고마운 의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 그는 피난을 못 가고 공산치하에서도 환자 진료를 계속했다고 한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지만 그는 서울이 수복될 무렵 북으로 갔다고 한다. 의사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옳단 말인가. 북한에서 김일성의 맹장수술을 했다는 장거리 박사가 생각난다. 이분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을 결국 떠나서 남하했다. 만아들만 데리고 부인을 이북에 두고 남하하여 불쌍하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인술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반려견의 새로운 필수품 하나

허선행(64, 대뉴욕)

누가 말했는가 (The Captain?)
개는 냄새 맡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리고 개가 어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 신통치 않은 버려진 사람일 것이라고 그리고 개가 바로 당신을 안 좋아한다면 당신은 새 친구를 만드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고...

아마도 서기 1300년대 아니면 중세기 후반에 Irish 왕이나 장군들은 그 당시 개(hound)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또한 귀해서 자신들의 이름 앞에 Cu(개)라는 prefix를 붙여야 권위 있는 왕족이나 귀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Cu Chonnacht O'Reilly, King of Breifne) 그리고 이 Cu가 안 붙어 있으면 고양이 정도나 키우는 귀족으로 업신여겼다고.



1800년 중반에 유럽에서도 개나 강아지를 끌고 거리를 거니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는데 특히 파리에서는 여인들에게는 French bulldog이 대인기였다나! 이 여인들이 French Bull dog을 데리고 거리를 다니며 사교를 하게 되었고 멋진 남자도 골라서 만나다 보니까 이 여인들의 약 20%는 결국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었다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실랑민을 생각하여 자신은 가지 않았고 아들 장가용 교수만 갔다 왔다고 한다. 그야말로 본을 받을 의료인이요 기독교인이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피난을 간 사이에 청파동에 살던 외삼촌이 우리 집에 왔다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내가 빼졌던 그 우물 속으로 던져졌다. 그들은 우물을 향하여 총을 난사했다, 그러나 다치지 않고 외삼촌은 살아났다. 그렇다면 그 총을 쏜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고 죽이는 척하고 살려주었던 것은 아닐까? 내 우물 추락 사건이 있었던 때 나를 돌보아 주던 봉순이 누나가 공주 피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 피난길에서 함경도가 고향인 오빠를 만났다면 공주 근처에서 나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누나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내가 부주의해서 다쳤는데 애를 잘 못 보아서 빠트렸다고 추궁당했던 봉순이 누나, 추운 겨울이면 찬물에 설거지를 하면서 차별을 받던 쓰라리게 손등이 터있던 봉순이 누나, 아직 살아있는지?

형들은 식량만 축내고 빈둥빈둥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형 세 명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나가서 밥벌이를 하라고 하면서 내몰았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하던 큰 형은 신문기자 언론인이 되었고, 아래 두 형들은 미군 부대에 취직했다. 한 사람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작은 형은 영어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서투른 영어로 통역관이 되었다. 식당에서 일하던 형이 어느 날 한 양동이 되는 것이긴 감자(Masshed Potato)를 킁킁거리면서 들고 왔다. 진한 버터 냄새가 몹시 났다. 남아서 버리는 것을 동생들을 생각하고 가지고 온 것이다. 저녁이 어두운 어느 날 흑인 병사 두 명이 총을 들고 술이 취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여자를 찾으며 야단이다. 손발을 휘두르며 할

고... 이 모두 반려견을 통한 대화와 사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의아해진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아도 동물 애호가 중에서도 개나 강아지를 식구처럼 키우며 아껴주고 맛있는 음식에다 심지어는 침대에서 같이 자기도 하면서... 여행 중에는 개 호텔에서 애견의 편안함을 끝까지 챙겨주는데 머지않아 애견 호텔 사업이 많이 발전할 것 같다.

한 가지 특히 궁금한 것은 견공의 변소 시설과 그 design이다.

내가 사는 집 앞 길은 하루 종일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바쁘는데 이 개들이 좋아하는 소 대변보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서 그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바로 잔디나 꽃밭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좋아하듯이, 이럴 때마다 눈치 보면서 그 개의 대변을 플라스틱 봉지에 손으로(?) 긁어 집어넣어서 한 손에는 이 똥주머니, 다른 손에는 Leash를 잡고 좀 불편한 산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하기에 가끔 그 똥주머니가 길가에 조용히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소변을 받아야 하는 규범이나 기구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나 동물의 소변은 산성이 높아 잔디나 꽃이 결국 타죽게 되는데 이들의 방뇨를 조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환경 오염이라는 좀 더 대국적 경지에까지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런 현상은 고층 아파트로 딱 찬 큰 도시 주변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뉴욕시 보다 더 뽁뽁이 들어선 한국이 우선 더 걱정이 되니 나의 헛된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제안은 개와 애견인들을 위해 개에도 외출용 Diaper를 채우자는 것이다. 개 호텔에 있을 개와 강아지의 Toilet이 특이하듯이 우리 모두의 애견에 알맞고 편안한 Design의 Diaper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머니와 어머니는 그들을 만류하고 '색시 없어'하며 외쳤다. 이때 그들을 쫓아서 미군 헌병(MP)가 들어와서 잡아갔다. 통제구역 벗어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영등포에 주둔하던 미군과 함께 작은 형은 통역관으로 떠났다. 큰형도 대한민국 군인으로 징집되어 보병학교와 병참학교를 마치고, 휴전이 될 때까지 전선을 군수물자와 병사들의 시체를 신고 넘나들었다. 육이오 참전용사이다. 큰형은 수년 전에 타계한 후 용인의 장교 국군묘지에 안치되었다. 작은 형은 유엔군 미 제2사단과 같이 최전방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미 제2사단 23연대 공병중대원으로 유명한 지평리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프랑스 대대와 같이 1951년 2월 12-15일 경기도 양평과 이천 일대에서 있었던 치열한 중공군과의 결전이었다. 휴전이 가까워질 무렵 형은 John Stuck 공병 중대장이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 배려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형을 도와준 그 중대장 자신은 형이 떠나기 전에 뉴욕에서 온 Big John와 같이 중공군한테 잡혀서 사망했다. 몇 년 후 형은 그때 인연을 맺은 병사들의 재정보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Southern Illionis 대학에서 Accounting을 공부하고 시카고에서 88세의 나이에 아직도 서준석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이 지평리 전투의 승리가 있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 있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다음 호에 제2부가 계속됩니다.]
6.25 이야기인 이 글은 곧 서울에서 발간되는 '그때 그 곳의 나의 증언'(사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The 37th Annual Medical Convention REGISTRATION FORM

한국이름		졸업년도	
eMail 주소			
장 소	The Westin Tyson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호텔 방 Rate		\$134.00	
Reservation Link	Book your group rate for 37th Annual SNUCMAA Convention June 2022		
예약 전화번호	Hotel direct (703) 893-1340, Marriott reservation (888) 236-2427		
Registration Fee	회원	\$200/member	\$
	회원의 배우자	FREE	
	Member in training	FREE	
	본교와 본원 임원	FREE	
	Outside invited speakers	FREE	
Convention Donation			\$
Golf June 23 (Thurs) Westfields Golf Club tel: 703-631-3300	참가회원	\$100/person	\$
	참가 회원 배우자	\$100/person	\$
	본교와 본원 임원	FREE	
아침식사 Breakfast (7:30am - 8:30 am)		동창회 제공	
June 24 (Fri)	참가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인원수	명
June 25 (Sat)	참가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인원수	명
June 26 (Sun)	참가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인원수	명
점심 식사 Lunch (12:00 noon~1.00pm)		동창회 제공	
June 24 (Fri)	참가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인원수	명
June 25 (Sat)	참가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인원수	명
June 26 (Sun)	참가하실 날짜에 참가 인원 표시	참가인원수	명
저녁식사 (6월 24일, 메뉴 선택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6월 24일(금) Banquet 저녁 연회 (6:30 pm 시작)		\$130/person	\$
	Entree New York Steak	참가인원수:	\$
	Salmon	참가인원수:	\$
	채식 메뉴	참가인원수:	\$
6월 25일(토) Reception (5:15pm 시작)		동창회 제공	
	참가회원	참가인원수	명
	참가 회원 배우자	참가인원수	명
	본교와 본원 임원	참가인원수	명
6월 25일(토) Grand Banquet 저녁 연회 (7:00 pm 시작)		\$170/person	\$
	Entree Beef & Shrimp Combo	참가인원수:	\$
	채식 메뉴	참가인원수:	\$
		Grand Total	\$

All checks Payable to SNUCMAA
Address send to: P. 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MAA Office information: (516) 365-5500, snucmaa@yahoo.com

호텔 예약 정보

일정: 2022년 6월 23일에서 26일
 호텔 예약 link는
 email로 받으시는 것을 여시면 되십니다.

**Book your group rate for
 37th Annual SNUCMAA Convention**

You will find the information for your online reservation link below. If you have questions or need help with the link,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We appreciate your business and look forward to a successful event.

Event Summary:

37th Annual SNUCMAA Convention
 Start Date: Wednesday, June 22, 2022
 End Date: Monday, June 27, 2022

Last Day to Book:

Hotel(s) offering your special group rate:

* The Westin Tysons Corner for
134 USD per night

Hotel Direct: (703) 893-1340
Marriott reservation: (888) 236-2427

NON CME PROGRAM

Room: Oaks #2

2022년 6월 24일(금요일)

- 9:00-9:50 온기철
임진왜란
- 10:00-10:50 서량
불경스러운 말들
- 11:00-11:25 서윤석
시계탑 발행과 동문 저서 소개
- 11:25-11:50 Morgan Stanley
Private Investment
(사모펀드, 부동산)
- 12-1:00 Lunch Brake (room: Birches)
- 1:00-1:50 배성호
치매와 영성,
Dementia & Spirituality
- 2:00-2:50 나두섭
사진 자신 있게 찍는 법
- 3:00-3:50 온기철
정유재란

2022년 6월 25일(토요일)

- 9:00-9:50 서량
시어(詩語), 문어(文語), 구어(口語), 아니면 속어(俗語)
- 10:00-10:50 조병선
갤럭시 폰 필수 사용법 1
- 11:00-11:50 이영목
역사는 애국이 아니고
과학이어야 한다.
- 12:00-1:00 Lunch Brake (room: Birches)
- 1:00-1:50 조병선
갤럭시 폰 필수 사용법 2
- 2:00-2:50 강창욱
이광수의 Short Story
영문 번역
- 3:00-3:50 배영훈
감정 표현과 우울

SNUCMAA 2021-2022 제50대 안우성 회기 임원 명단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안우성 (76) ahnws0814@yahoo.com
 President Elect 전경배 (75) kbchon@hotmail.com
 1st Vice President 차민영 (82) minycha2003@gmail.com
 Secretary 김영애 여사 yakim423@gmail.com
 Treasurer 김자성 (85) drjasungkim@gmail.com

Committee Chairmen

Finance 김성환 (71) sunghwkim@gmail.com
 Scholarship 강민중 (91) min-jong.kang@yale.edu
 Scholarship Associate 이선희 (81) leesteinway@gmail.com
 Fund Raising 최광휘 (76) akchoi52@gmail.com
 Scholarship Fund Man 이명희 (66) DocM4@aol.com
 Research & Fellowship 김원정 (75) wk138@rwjms.rutgers.edu

Green Project
 Publication
 By Laws
 Advisory & Exchange
 Nominating
 Office Management
 Charity
 Website
 Associate Website
 Convention Chair
 Convention Co-Chair
 Scientific Chair
 Scientific Co-Chair
 Non-CME Chair

임경빈 (99) kbnim@gmail.com
 서윤석 (68) younseo2004@gmail.com
 문대옥 (73) dmoon625@hotmail.com
 이만택 (58) mmtlee@hotmail.com
 안우성 (76) ahnws0814@yahoo.com
 서귀숙 (84) Catherinegs@gmail.com
 최영자 (66) ychoikim@gmail.com
 주광국 (68) kwangjoo@hotmail.com
 송경민 (09) minnie0802@gmail.com
 서윤석 (68) younseo2004@gmail.com
 조병선 (71) byoungscho@hotmail.com
 박중철 (99) jpark73@mgh.harvard.edu
 신규호 (68) khshin59@gmail.com
 김영애 여사 yakim423@gmail.com
 김성환(71) 부인